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93 1982년 11월 3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November 3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DEC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장순채씨 회장 당선

우여곡절끝에 절대다수 지지얻어

비밀투표가 거수로 변한 인준총회

◆제18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장순채(중앙)씨: 장씨의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변의섭(좌)부회장, 이기훈(우)부회장과 같이 당선 직후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토론토한인회를 이끌 신임 한인회장단에 장순채·이기훈·변의섭씨가 압도적 다수로 인준됐다.

27일 하오3시부터 서번·스트릿의 중앙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 한인회장인준을 위한 한인회임시총회는 6백여명 참석자중 13명만이 인준을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입후보한 장씨팀을 거수로 인준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노출된 문제점은 (1)선거관리위원회가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한 무기명투표 대신 과거처럼 거수로 찬·반을 결의한 점, (2)선거관리위원장 아닌 박인순한인회장이 시종일관 사회봉을 잡았고 새 회장단의 인준선포도 해 버린점, (3)부회장이 회장의 사회마이크를 뺏아 발언을 시도한 점, (4)이사장, 선거관리위원장, 두 부회장 모두가 하단해 버린 가운데 회의를 진행한 점등을 들수있다.

이외에도 총회도중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은 몹시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워 민주교육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회의가 끝난후 지지·반대자간에 욕설이 오가는등 추태를 보인행위는 규탄되어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참석교민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날 총회장에는 예정되었던 3시께 약600명의 교민들이 장내를 메워 총회의 열기를 증명했고 노년회원들이 약300개 의자를 차지한 가운데 3시20분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다.

박회장이 인사말을 끝내고 회순채택순서에 들어가자마자 말썽은 일었다. 김재용씨등 일부회원들은 「인준투표」항은 예전에 없었으므로 단독후보자에 대한 인준여부를 박수나 기립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병섭이사장은 "한인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제이므로 인준도 이에 따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찬도씨는 "한인회가 회장선거를 박수·기립식으로 하면 공산당과 다를게 무엇이냐"면서 비밀투표방식을 주장하자 김씨등이 공산당소리에 흥분, 총회장은 잠시 수라장으로 변했다.

장영채부회장·김문량선거관리위원장등이 단상에서 잇달아 투표의 당의성을 열변했음에도 불구, 장내의 분위기는 이미 거수표결 지지쪽으로 기울어져 절대다수로 통과됐다.

장후보의 소견발표가 있은후 사회를 맡은 박회장이 "장순채씨의 제18대 한인회장 당선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약80%가 손을 들어 지지한 반면, 반대자로 단13명만이 손을 들었다.

이때는 이미 단상에 자리했던 함병섭이사장, 고순복, 장영채부회장, 김문량선거관리위원장등이 박회장에 대한 항의로 단상에서 이미 하단한 뒤였다.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회원들은 "단독후보라도 투표를 통한 정식선거를 치룬다기에 총회장까지 나왔는데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 섭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회원은 회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야 하는데 총회의장인 박인순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를 진행했으니 이번 회장인준은 무효"라고 열변을 토했다. 함이사장은 "29일 선거관리위원회모임이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순채신임회장은 "이사회가 인준방법을 무기명투표로 새로 정했다고 하지만 최고의 의결기관인 총회회원들이 이를 변경할수 있는 것이고 본인은 총회원들의 절대다수 의사에 의해 회장에 합법적으로 당선됐다"면서 앞으로 취임시까지 2개월간에 걸쳐 회장으로서 한인회를 이끌어갈 본격적 준비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는 오는 1월중순에 정기총회를 열고 신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신·구회장단의 이 취임식을 가진다.

◆총회에서 인준방법을 무기명투표대신 종전대로 거수로 하기로 가결되자 한인회 신영식총무(우)에게 항의하는 회원 최수호씨(좌)

◆무기명비밀투표가 부당하다고 단상앞까지 나와 열변을 토하는 장순채후보의 절대지지자.

변의섭씨 댁 총회도중 화재

침실1개 전소, 인명피해 없어

27일 한인회장 인준총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블루어 하드웨어를 경영하는 변의섭 신임한인회부회장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침실1개가 전소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608 블루어·스트릿·웨스트에 위치한 하드웨어 스토어2층 2베드룸 아파트에 세 들어있는 변씨는 이번 화재로 침실가구와 옷, 패물등을 잃었다. 아파트는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고있다

화재원인은 매스터·베드룸에서 놀고있던 변씨의 5살과 4살난 두 딸이 아빠의 라이터를 갖고 놀다가 옷장과 옷에 불길이 옮겨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29일 변씨부인 변정자씨가 밝혔다.

화재발생 당시 아파트에는 22살난 변씨의 조카가 부엌에 있었고 두 딸이 옷장 밑에서 놀고 있었다. 불이나자 조카가 재빨리 변씨의 두 딸을 피신시킨 뒤 소방서를 불렀고 2, 3분내로 달려온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침실1개만 전소시킨 뒤 진화되었다.

변씨부부는 이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하오2시15분경 아파트를 떠났었다.

총회장에 앉아있던 변씨부인은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은채 집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그때는 화재가 다 진압된 뒤 였다.

침실이 타 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될수는 없는 귀중품들과 이불, 옷들이 몽땅 타버렸고 집을 새로 복구시켜야 하는등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애들이 무사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변씨의 부인은 당분간은 새 한인회장 장순채씨댁에서 기거한다고 전했다.

진화작업으로 하드웨어 가게는 물바다가 되었으며 피해액은 1,000달러로 추산되고 있으나 점포는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변씨는 말했다.

◆화재가 난 변의섭씨댁 침실. 변씨의 부인이 화재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한국인7명질식사

쿠웨이트 공사장

(서울 29일=연합) 쿠웨이트의 도로공사장에서 현대건설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국인 7명이 26일아침 숙소에 불이 나는 바람에 독가스에 질식, 숨졌다.

현대건설 서울본사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가료를 받기전 숨졌다.

현지의 현대건설직원은 이 불은 방안에 있는 간이옷장만을 태운후 5분만에 진화되었으며 화재원인은 옷장옆에 세워둔 전기히터의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했다.

이들 희생자중 43세의 트럭운전수인 박진씨등 3명의 유해는 28일밤 서울로 운구되었으며 나머지 유해는 12월2일까지 모두 서울로 돌아온다.

화재가 난 막사는 총700명의 현대건설직원과 노무자들의 숙소이다. 현대건설은 1억2천2백만달러짜리 도로공사를 80년 5월1일에 착공, 83년 1월25일에 준공할 계획이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김현장·문부식에 사형

대구고등검찰 구형

(대구 29일=연합) 대구고등검찰청은 29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16명 피고인들에 대해 지방검찰과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상고법원의 이날 구형재판에서 검찰은 김현장(32), 문부식(23)피고에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8월 지방법원 재판에서 두 피고는 각각 사형을 언도받았었다.

최기식신부(39)등 14명의 피고는 3년내지 무기형을 각각 언도받았었다.

이날 대구고등검찰청은 또 유승열, 최인순, 김지희의 세 피고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법원에서 15년형을 언도받았었다.

또한 3년형과 2년형을 각각 언도받은 문길환(36), 이창복(43) 두 피고에도 1심에서 보다 많은 3년과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의 피고는 지방법원과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김현장과 문부식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최기식신부에게 1심과 같은 3년형이 구형되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점판매대리점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투자이민 안내>

□자 격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생산업(제조업)에 최소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
□투자금액 : 대한민국 외국환관리법및 기타 이민법등에 의해 최대한의 자산. (동산및 부동산 포함)
□투자이민 장소 : 캐나다·퀘벡주.
□언 어 : 불어. 이민면담시(1983년11월 예정) 불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함.
□투자이민 응모 희망기한 만료 : 1982년12월10일(금)까지.
□제출서류 : 희망자 성명및 사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공장 포함) 증빙서류.
□사전면담및 현지방문 : 1983년 1 월 초순. (단, 투자이민 가능성을 사전타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함)
※사전심사에 통과된 희망자는 1983년 1 월15일부터 정식수속 가능하며, 본사는 이민투자 수속에 필요한 여러가지 시장조사및 연구와 더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도와줌.

(주)현영일 국제경영Consultant
(416)444-9341 (8:00 p.m.-10:00 p.m.)

김장뉴스

김치의 맛은 좋은 고추가루와 맛있는 젓갈 선택에 달려있읍니다.
맛좋은 순 한국산 고추가루, 구수한 멸치젓 황새기젓, 향긋한 새우젓, 싱싱한 한국산 굴, 까기 쉬운 육쪽마늘등은 삼복식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아직도 일손이 모자라 김장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삼복식품(☎ 743-827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입에 꼭 맞게 김치를 담아드립니다.
⊙주문 배달 환영

2437 FINCH AVE. W. ☎ : 743-8270
값싸고 신용있는
삼복식품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에드몬톤·에스키모 5연패

토론토·아고넛트 꺾고 그레이·컵 쟁취

초겨울날씨에 쏟아지는 비와 눈은 에드몬톤·에스키모팀의 열기를 더욱 북돋아 토론토·아고넛트팀(일명 아고스)을 물리치고 CFL(캐나다풋볼리그) 5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28일 익스비션스타디움에서 있은 제71회 그레이컵 결승전에서 에스키모팀은 10년간의 부진을 씻고 결승에 올라온 홈팀 토론토·아고스를 32-16으로 가볍게 눌러 그레이스·컵을 또다시 차지했다.

에스키모의 쿼터백 웨렌·문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 고향 남부캘리포니아의 햇볕내리는 날처럼 훨훨날으면서 와이드리시버에게 전해준 2개의 터치다운패스를 비롯, 이날 결승전의 완전 독보적존재였다.

문은 33번시도에 21번의 패스를 성공시켜 319야드를 따냈고, 패스가 여의치 않으면 러닝백으로 돌변, 91야드를 뛰어서 얻어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그레이컵을 차지하려던 토론토·아고스는 전반초반까지는 기를 쓰고 덤볐으나 역부족으로 전반은 20:14로 뒤졌으며 후반에는 기진맥진 스타디엄을 꽉메운 54,741명의 관람객의 열렬한 성원에도 불구, 최종스코아 32:16으로 참패했다.

에스키모는 CFL '82 시즌중반까지 3승5패를 기록 많은 캐네디안들이 이제 "에스키모도 갔구나"하고 실망을 했다. 그러나 분발한 에스키모는 9차전부터 최종승리까지 9연승이라는 전승가두를 달려 캐나다의 어느팀도 기록못한 5연패를 이루었다.

28일 그레이컵 결승전을 앞두고 토론토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27일「그레이컵 가두행진」과 미스 그레이컵선발등을 거행하는등 온통 도시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다.

금년도 미스그레이컵은 사스캐치완주 출신인 레스리·메노우톤양에게로 돌아갔다.

캐나다풋볼의 최고팀을 뽑는 그레이컵 쟁탈전 행사는 내년에는 벵쿠버로 옮겨 캐나다 최초의 돔경기장(실내경기장으로 축구, 야구등을 할 수 있다)에서 거행된다.

◆에드몬톤·에스키모팀을 그레이·컵 5연패로 이끈 주역 쿼터백 웰렌·문선수.

제5회 한인탁구대회

신인 이숙영 우승

지난 27일(토) 웨스트리취 쥬니어교교에서 열린 제5회 한인탁구대회 대표팀 단식경기에서 신인 이숙영(21세)양이 과거 4년연속 우승자인 이성기군을 2:0(14:21, 9:21)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금년도 챔피온이 되었다.

코리언·저널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선수40여명이 참가, 예년에 비해 인원이 다소 적었으나, 탁구수준은 과거 어느때보다 월등했던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년간 토론토에서 개인단식을 석권해 온 이성기군(온타리오 심판위원)은 "비로소 적수를 만났다. 실상 나는 아마추어 선수다. 여자지만 프로를 꺾기란 벅찼다.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기회를 보겠다"고 말했다. 여자로서 우승을 차지, 선수와 관중들을 놀라게한 이양은 2개월전 가게를 경영하는 삼촌 김용규씨의 초청으로 이곳에 이민왔다. 이양은 시온여고 탁구팀이 전국을 제패할때 크게 기여, 일본원정등을 했으며 80년 고교졸업후, 제일모직에 입사, 선수생활을 해왔다.

한편 단체경기에서는 송완일씨 코치로 김형주군이 이끄는 "임마누엘교회"팀이 이상규군의 "딕시한인장로교회"를 3:0으로 격파, 우승을 차지했다. 또 다른 우승후보로 꼽히던 김형주군은 같은 교회팀의 유영곤군이 개인단식경기에 출전하자, 친구를 위해 기권, 단식경기에서 유군이 패한후 출전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만25세 이상의 OB단식경기에서는 송광호(한국일보 광고국장)씨가 황운모와 키취너에 사는 강력한 우승후보 장용삼씨를, 각각 물리치고 우승했다.

각 부문별 경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
1.임마누엘교회
2.딕시한인장로교회
▲단식(대표팀)
1위 이숙영
2위 이성기
3위 이상규
4위 이창오
5위 황병준
▲단식(OB팀)
1위 송광호
2위 황운모
3위 장용삼
▲복식
1위 이성기·장용삼
2위 이상규·함병준
3위 김형주·유영곤

◆제5회 한인탁구대회 대표팀 결승전에서 신인 이숙영(좌)양이 수년간 대회를 석권해 온 이성기(우)씨를 2:0으로 물리치고 금년도 챔피온이 되었다.
OB팀전에는 한국일보 송광호 국장이 우승했으며, 단체전 우승에는 임마누엘교회에게로 돌아갔다.

재일교포 중학생 자살

민족차별등 학대비관

(도쿄-외신) 재일교포소년의 자살사건을 에워싼 민족차별등 문제로 부모와 교육위원회측 사이의 마찰이 물의를 빚은 사건이 요즘 재연되었다.

일본 사이다마겐 후꾸오까시에서 지난 79년9월 빌딩청소업 임동팔(37)씨의 장남이며 시립제3중학교1년생 임현일군(당시 12세)이 자기집에서 가까운 맨숀에서 뛰어 내려 자살했다.

부모의 진정으로 자살원인 규명중 임군이 놀림감이 되었으며, 민족차별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교육계를 비롯, 한국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후 3년, 부모와 교육위원회간에 담임교사등의 책임을 인정, 화해서가 교환되고, 사건은 일단 해결된듯 했으나 화해후 1년반 지난 지금도 위자료를 제외한 화해조항이 이행되지 않은채 시일만 끌고 있다.

"전례가 없다. 지방관서가, 정부가…"등으로 시교육위원회가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어 부모측은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화해조항 불이행을 들어 소송준비를 서둘렀다.

학교측은 당시 자살배경에 대해 "집단적으로 학대하거나 한국인이라 하여 차별대우한 일은 없다"고 잡아뗐으나 임씨부부와 한인단체등이 동급생을 찾아가 조사한 결과 현일군은 직접간접으로 일인학생들의 학대를 받았고, 민족차별대우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와 시교위측도 결국은 이를 인정, 사건후 18개월후인 작년5월 5개항목의 화해서를 교환했다. 화해서 내용은 임군의 자살사건은 (1)담임교사나 교장등의 실수도 있어서 일어났음을 인정, 위자료로 부모에게 500만엔을 지불한다. (2)사건에 책임이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신속히 공정한 처분절차를 취한다」. (3)앞으로 다시는 민족차별로 말미암은「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립 국민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재일한국인자녀에 대한 교육지침을 작성한다는등의 골자를 약속하고 있다.

◆죽은 임현일군

그런데 이제까지 이행된 것은 시가 지불한 위자료 지불뿐이었다.

처분대상인 담임과 교장은 지난 봄의 교사이동으로 시외의 학교로 전임, 인사처분의 미온적 미봉책에 격분한 임씨측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질문서를 교육위로 보내는등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교육위측 답변은 "자살기미나 학대를 눈치채지 못한 지도상의 과오로 피원을 처분한 전례가 없다"는등 화해서 작성시와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에 대해 임씨부부는 "우리 현일을 죽게한 교사에 대한 공정한 처분과, 다시는 그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이 화해사항 작성때 우리가 바라는 바였다"고 전제 "학대받는 어린이의 비극은 일본전국에 걸쳐 수없이 많을 것이다. 교사의 책임을 계속 추궁하는 것은 교사의 억제력 촉구가 되고, 현일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도 된다."고 말했다.

〈소 론〉

이민사회와 문화

김정근
(본사논설위원·온타리오이민사연구소 연구원)

의식주생활에 대한 향상이라는 과제를 우리들은 이민이 되는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조건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 틀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조건의 향상, 그것만을 과제로 삼고 정든 땅을 떠나 외지에서 삶의 터전을 닦고 있노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동기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이거나를 가릴것 없이, 이민살이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서 오는 풍부한 정신적 삶을 이룬다고 하는 또 하나의 과제를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속에 뿌듯하게 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생활속에 높은 문화를 이룬다고 하는 정신적 과제가 이민의 이정표속에 알게 모르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경제생활을 향상시키며 높은 생활문화를 이룬다고 하는 이 두가지 애초의 과제를 어느만큼 만족하게 섭취시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민 개인의 성숙한 생활이라는 견지에서, 또한 이민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어 봄직하다고 하겠다.

한인이민사회를 경제적 측면에서는 흔히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민 이전의 상태에 견주어, 또 이민을 갓 왔을 때와 비교하여, 이민살이를 하는 본인들이나, 이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나, 다같이 괄목할만한 발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국내와 캐나다사회의 비교진단에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결론인 듯 하다.

그럼, 문화생활은 어떤가?

문화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신명을 지피며, 영감을 얻으며 살게 해주는 지적이며, 정서적인 공기라고 정의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민자의 혼을 드높여 주는 음악과 미술이 있는가?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우수를 달래주는 시와 소설이 있는가? 배꼽을 쥐고 웃게도 해주며, 슬픔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는 연극무대가 있는가?

우리는 이같은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대답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이민사회의 문화적 가능성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되어있는 꼴을 진단해볼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해진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뭏든 이 대목은 생각이 있는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민살이의 한 꼬인 매듭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생활에 관한한 여태껏 우리들의 태도가 턱없이 안이하였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한국의 문화는 이미 우리속에 들어와 있으니 안심이며, 북미의 문화는 시간이 문제이지 곧 우리의 문화가 되어주리라고 보지나 않았나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떠했던가? 한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문화, 예술의 내용으로 부터 사실 이민사회는 거의 까맣게 차단되어 있는 것이나 아닌가 한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공간의 극복하며, 한국내에서 전개되는 문화적 실험과 성과들이 이민사회가 공유하며,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민길을 떠날때,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화내용은 우리들이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색이 바래고 낡아 이미 생활에 윤기를 주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몸을 담아 살고 있는 북미의 문화도 얼른 우리의 문화가 되어주지 않았다. 미국문학, 캐나다문학이 이민자의 문학일 수 없었다. 마가렛·앳트우드와 모데카이·리츨러의 시와 소설이 이민자의 뼈속에 스며들어 주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수의 이민이 〈타마락〉잡지나, 마가렛·로우렌스의 단편을 머리맡에 놓고 읽으며 잠을 청한다고 할 수 있는가? 윌리엄·쿠레렉이나「7인그룹」의 그림, 메시를, 토이·탐슨를의 음악회가 즐거운 하루, 저녁의 나들이감은 될 수 있어도, 그것들에서 이민자들이 제 물을 만난 고기가 맛보는 해방감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다른 언어, 감수성, 미감각의 거대한 장벽이 가려 있었다. 이 장벽은 이민1세에 관한한 마지막 숨을 이땅에서 거두는 순간까지 아마도 극복이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한국과 북미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리라는 환상속에서 이민살이를 시작한 이민1세의 문화적 주소는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두 문화로 부터 다같이 소외된 처지에서 문화적 공백속에 빈손으로서 있지나 않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공백속에서 있어야 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동안 우리는 일종의 문화적 위기감에 사로잡히기 마저 한다. 이렇듯 이민사회의 문화적 불모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감, 문화적 궁핍성에 대한 자멸감을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개선을 위한 처방은 여러가지로 내려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같은 작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성의있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합의일 것이다. 컴뮤니티의 문화적 공기가 그다지 신바람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우선 이르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19>

29분의 1 ㉔

옥자가 털어놓은 사실에 흥분한 馬형사…

「그전에도그런 일이 있었나?」

「네, 한번……」

「그게 언제였지?」

옥자는생각해보고나서 대답했다. 이제 그녀는 처음보다는 꽤 적극적이 되어있었다.

「외삼촌이 오기 하루전인가 이틀전인가도 그랬어요. 아줌마가 돈을 주면서 나갔다 오라고 해서 나갔다왔어요.」

「왜 나가라고 그랬지? 그때도 외삼촌이 찾아왔었나?」

「아니요. 그때는 외삼촌은 오지 않았어요. 어떤 키큰 남자가 찾아왔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마인은 속으로 손뼉을 쳤다.

「집에 자주온 사람이었나?」

「아니예요. 그날처음 본사람예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 이사람 아니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까만 안경을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못봤어요.」

「까만안경을 끼고 있었다구?」

「네, 아주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그날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이야기했다.

「아줌마한테 온 전화였는데 아줌마가 받지를 않았어요. 얼마후에 우체부가 등기편지가 왔다고 하기에 밖에 나갔더니 까만 안경낀 사람이 앞에 서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밀어제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줌마는 그사람을 보자 몹시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하고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 부엌에서 들으니까 아줌마한테 막 반말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 옥자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도 빼놓지말고 이야기해봐.」

「아줌마가 알면 화를낼텐데 어떻게……」

「이거봐.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주었는데 야박하게 너를 내쫓았어. 그런 아줌마를 생각해줄필요가 어딨어.」

형사의 말에 수긍이 가는지 그녀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줌마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남자가 전화를 안 받아서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피하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욕이나 하고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나 놀랐는지…」

「그래 목욕했나?」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조금후에 안방 욕실에서 물트는 소리가 났거든요. 저는 조금있다가 아줌마가 나가라고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일이일어났는지 잘몰라요. 하여간 아줌마는 그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몹시 무서워하는 것 같았고…」

「그뒤에는그사람 보지못했나?」

「그뒤에는집에 오지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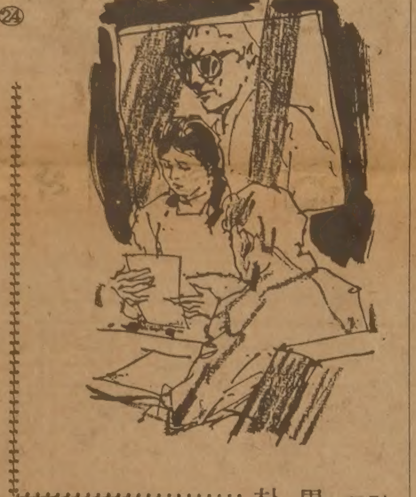
「외삼촌이 왔던 날 말인데…그날이 정확히 며칠이었는지 기억 안 나나?」

「이틀 뒤에 제가 그집에서 나왔으니까 그날이…」

「12월4일 아니었나?」

「네, 맞아요. 12월4일이었어요.」

너무나 맞아떨어진다.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인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숨쉬기가 거북할 정도였다.



朴男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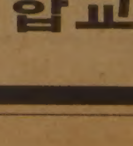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 V VIDEO 염가판매
● T 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담임목사 부임 환영예배

김택규목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김택규목사님을 청빙하여 본 교회를 아껴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부임 환영예배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 12월12일(일요일)
낮12시30분
장소 : 353 SHERBOURNE ST.
TORONTO

중앙한인연합교회 당회원일동

메시아 공연 4일로 박두

합창단원 마지막 점검에 여념없어

오는 12월4일 밤8시로 박두한 메시아대공연을 위해 지휘자 박재훈박사를 비롯한 한인합창단 단원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다.

79년 9월 창단된 한인합창단은 작년 11월 노스욕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제1회 메시아 대연주를 매씨홀에서 성황리에 가졌고 이번 제2회 연주는 대부분 토론토 심포니단원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와 디트로이트 한인합창단과 협연으로 갖는다. 이번 공연에 동원될 인원은 모두 200여명.

매주 금, 일 양일저녁 연합교회에서 연습을 갖는 단원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보살피는등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합치면 메시아공연 준비인원 규모는 거의 300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프로로 유명한 CJRC FM에서 녹음하며 토론토·스타, 글로브·앤드·메일지의 담당기자들도 연주평을 쓸 것으로 전해져 한인합창단(The Toronto Korean-Canadian Choir)의 존재는 토론토음악계에 점점 크게 부각돼가고 있다.

합창단의 문남귀단장은 28일 "제1회 공연의 캐네디언 청중수는 전체의 약20%였어요. 그러나 이번 2회 공연에는 약50%가 캐네디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한인합창단이 캐나다사회에 인식이 돼간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전길총무는 또 브라보(Bravo)라는 로이·톰슨·홀 및 매씨홀 연주안내잡지에도 사진과 함께 한인합창단의 연주가 크게 실렸다고 전하면서 교민 청중들은 연주날 입장시간 엄수와 어린이동반, 장내 음료 [illegible]

메시아공연을 내년 12월9일 토이·톰슨·홀에서 가질 예정인 한인합창단은 내년 첫 행사로 2월26일과 27일 이틀간 노스욕·심포니 주최로 메씨홀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협연으로 공연한다.

금년도 메시아공연에는 소프라노 이주연, 메조소프라노 양경자, 테너 조영호, 바리톤 신경욱씨등이 독창자로 찬조출연 한다.

토론토교역자 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이 끝나면 전 단원은 6일 디트로이트 오케스트라홀에서도 연주를 갖는다.

티켓은 $12, $11, $8, 구입처는 222-4662(Mrs. 김), 222-2901(Mr. 최)

◆메시아 대합창 연습광경.

백인천 청룡떠나

봉급인상 거절되자

(서울 29일=연합) 한국의 인기야구스타 백인천선수가 자신의 봉급인상에 대한 분쟁때문에 지난 주말 소속팀인 MBC청룡을 물러났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명성을 떨친 강타자 백선수는 지난봄 한국최초의 프로야구 시리즈에 출전하기 위해 [illegible]

교민동정

◆최영호(한인성당 전교부장)= 오는 성탄때 세례를 받을 구도자들을 위한 전교피정을 12월5일(일) 상오 11시30분 한인회관 2층에서 [illegible]

—〈독자의 광장〉—

어느날 아침에

이 상 태 (미시사가 거주)

[illegible]

性敎育 모두 말합시다 ⑪

父母와 子女가 함께읽는 시리즈

젊은이의 性的충동…끈기로 극복을

再修生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년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비해 유난히 女子를 밝히는 것(?) 같아 고민이라며 호소를 해 왔다. 우려하는 상태는 대략 다음과 같은일들이다.

길을 걷다가도 여자만 보면 시선이 떨어지지 않을만큼 그 여자에게 끌리면서 성의 충동을 느낀다. 혼자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느끼는데 때로는 한집에 사는 누님이나 누이동생에게 까지 이런 충동을 느끼게되어 곤란하다. 아직까지는 이성으로 억제를 해오고있으나 언젠가 실수를 할것 같아 불안하다. 그뿐아니라 자기는 모든 일에 의심을 잘 하는 편인데 장차 결혼을 하면 의처증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는 아직 한번도 성행위를 한 경험은 없고 자위행위는 1주일에 한번 정도를 하고 있다.

대략 이상과 같은 호소내용인데 삼자의 입장에서 들으면 우습기 조차 한일이다. 결국 再修生으로서공부하기가 싫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다시 없는 큰 고민거리 임에는 틀림이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는 우선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친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설명의 내용으로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라고 수긍하기는 어렵다.

이 再修生 정도인 연령의 청년이 여자를 보고도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異常이라 봐야겠다. 이 욕구는 물론 대상이 반드시「남」이라야 할 필요가 없고 집안의 여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사람으로서의 [illegible] 이 [illegible] 성으로 (이 청년이 품듯이) 이런를 [illegible] 고 있는 [illegible] 하지 않기 위해 적당한 연령이되면 결혼이란 절차를 밟아서 사회에서 허락을 받아 정당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청년의 경우 결코 이상할것이 없는데 다만 결혼을하면 의처증이 생길것이라는 호소는 좀 문제가 있다.

결혼생활이라는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경험해 본 바도없는 처지에서 벌써 의처증이 생길것이라는 생각을하는 비약(飛躍)에는 어딘지정상적이지 못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자기암시(自己暗示)에걸려 있는 상태라 할수있다.

이런 상태는 결국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있다. 자신을 관리못한다는 상태는 먼저 말한 성욕구의 이성에 의한 억제에도 어쩌면 영향을 줄수있는 것을 비롯해, 이제부터 인생을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맞아야할 많은 시련앞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청년은 좀더 강한 용기를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金 貞 泰

【博博 · 한국人口保健연구원】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 (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 잡화 구비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944
한국관남 533-2361 광고로 구독료 지불은 CHX, MASTER CHARGE를 사용하세요
VISA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DIGO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디고모피 정승규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구독신청·배달착오 : 533-2361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한국관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비빔밥 $4.00
곰 탕 $3.25 육계장 $4.00
냉 면 $3.25 *맥주 1병 · 1불25전

□크리스마스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 오전10시 - 새벽1시까지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금주 여가 유여 접대소의 주차를 허락 구합니다

法人稅率 30~33%로

稅法小委합의 政府案보다 8%上向조정

所得稅率 百80萬원이하 6%

國債발행 千30億축소

근로소득控除 94만원까지 附價稅法개정안 계류키로

국회재무위稅法小委는 그동안 與野간의 의견차이로 진통을 계속해온 所得稅法, 法人稅法, 附價稅法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벌인끝에 소득세에서 2백18억원 특별소비세에서 15억원을 삭감하는대신 법인세의 稅率인상과 附價稅法案의 계류및 소득세법의 세율구조 조정으로 생기는 1천30억원의 稅收증가분을 全額 내년도國債발행규모축소에 충당키로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초 내년도에 5천5백억원을 발행키로 돼있던 國債는 3천4백70억원을 발행케된다.

稅法小委는 이날 소득세법중 소득세율구조를 정부안의 14단계에서 17단계로 현행대로 다시 확대하고 稅率도 최저6%(1백80만원이하)에서 최고55%(6천만원이상)로 조정하며 稅額공제는 30만원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30%, 30~40만원 근로자 20%, 40~50만원 근로자에 10%를 적용키로했다.

小委는 또 1백%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의 최저한도를 현행 88만원에서 94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70만원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교육비공제를 전체근로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小委는 법인세에있어 課標 5천만원이하 法人에 대해서는 정부案대로 20%의 稅率을 적용하되 5천만원이상법인에 대해서는 30%(정부案22%), 非上場대기업에 대해서는 33%(정부案25%)로 조정, 정부안보다 8%씩 上向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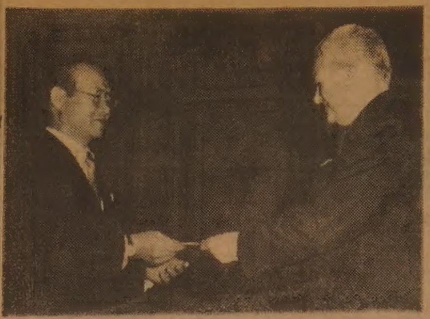
小委는 정부가 제출한 附價稅法개정안을 계류시키되 근로사업장및 학교식당에 대한 부가세폐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이같은 小委의 합의에따라 내년도 稅收증대분은 ▲법인세율의 上向조정으로 8백6억원▲소득세법중 세율구조 확대와 최고세율 上向조정으로 1백45억원▲부가세법의 계류로 3백56억원등 모두 1천3백7억원이 증대된다.

그러나▲稅額공제확대로 63억원▲근로소득공제한도액의 인상으로 1백23억원▲전 근로자에대한 교육비공제제도 적용으로 32억원▲特消稅의 조정으로 15억원▲非實名금융소득의 差等課稅축소로 44억원등 모두 2백77억원이 삭감돼 純稅收증대분은 1천30억원이 된다.

稅法조정내용

구분		현행	政府案	小委조정안
소득세법	소득세율 구조	최저年120만원이하 6%~최고年6천만원초과60%(17단계)	최저180만원이하 6%~최고6천만원초과50%(14단계)	최저180만원이하 6%~최고6천만원초과55%(17단계)
	稅額공제	1.30만원이하 20% / 30~40만원 10%	30만원이하30%(근로) 10%(사업) / 30~40만원15%(근로) 5%(사업) / 40~50만원 5%(근로) 5%(사업)	30만원이하30%(근로) 10%(사업) / 30~40만원20%(근로) 5%(사업) / 40~50만원10%(근로) 5%(사업)
	근로소득공제액	88만원이하 100% / 88~3백만원 20% / 3백만원초과 10% (공제한도 170만원)	現行과同一	94만원이하 100% / 94~3백만원 20% / 3백만원초과 10% (공제한도 170만원)
	非實名 금융소득等과세	모든 예금이자 10% 분리과세	83년 7월1일 이후부터 實名10%, 무기명·가명30%	83년7월1일 이후부터, 實名10%, 무기명·가명 15%
법인세법	課標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非上場 대법인	일반 22% 22% 38% / 공개 22% 22% 33% / 비영리 20% 20% 27%	일률적용 20% 22% 25%	일률적용 20% 30% 33%
	非上場대법인의 범위	(신설)	자본금1백억원 또는 자기자본2백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50억원, 또는 자기자본1백억원을 초과하는법인
상속세	年老者공제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불구폐질자공제	1백80만원	5백만원	8백만원
특별소비세법	흑백TV	10%	10%	5%
	휘발유	160% (실행세율 130%)	100%	100%
	LPG	(신설)	10%	10%
	관광요정	10%	10%	非課稅
	잠정세율 적용기간	2년	4년	4년
조세감면 규제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特例	(신설)	·고급주택과 未登記양도자산은 대상에서 제외 ·특례세율적용: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 세율은 5%까지 인하할수있도록함	·고급주택과 未登記양도자산및 국세청장이정하는 特定지역내의주택제외 ·특례세율의적용: 국민주택 5%, 국민주택규모초과20%
	근로자증권저축에대한세액공제	·대상: 月定급여액100만원이하 근로자(年120만원이상, 월급여액의30%限) ·10%所得稅額 공제	삭제 ※기득권 不認定	·대상 月定급여액100만원이하 (다만84년1월1일부터는 월정급여액 기준을 재형저축대상자 급여액에준함) ·10%소득세액공제



4개國大使 信任狀 全대통령 제정받아

全斗煥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에두아르도·프·산촌駐韓코스타리카, 칼톤·우즈리티꼿駐韓泰國, 호아낀·메사·이까사駐韓파나마, 마르셀·반·루우이駐韓벨기에대사(사진)등으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이 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이 배석했다.

테니스·射擊 祝電

全斗煥대통령은 25일 아시아경기대회 사격·테니스·소총3자세경기와 여자테니스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한 尹德夏선수와 여자테니스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 치하했다.

秋穀추가收買검토

농수산부 젖소導入·畜産團地 늘려

朴鍾汶농수산부장관은 25일 국회농수산위에서『11월22일현재 정부의 秋穀수매량은 계획량7백만석의 42%에 해당하는 2백94만2천석』이라고 밝히고『필요하다고 판단되면 農協자금으로 추가수매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이미 수매한 2백94만석중에는 2등품보다 가마당 1천8백30원이 높은 1등품이 전체의 72%를 차지, 작년의 61%에 비해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증대된것으로 본다』고 말하고『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축산기반의 확충방안으로 부락중심의 肉牛및 번식牛단지를 현재 전국 1백18개소에서 3백개소로 늘리겠으며 젖소와 비육우 도입량도 年間 4만두에서 6만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또『쇠고기 需給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포장육부터 부위별로 等級化하여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일반쇠고기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實名制 수정안 民韓, 國會제출

民韓黨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융實名거래법안의 修正案을 劉鍾和정, 金台植의원등 73명의 이름으로 이날 하오 국회에 제출했다.

이 修正案은 신규 금융자산거래의 경우 83년1월1일부터, 旣存무기명·假名은 83년 7월1일부터 實名化토록 하는 한편 저축성예금 금전신탁 채권등에 대해서는 만기일 도래시까지 實名化를 유예토록했다.

修正案은 또 稅務조사특례조항에서▲大株主계열기업의 增資▲장기주택채권매입▲서민용賃貸주택건설▲은행관리기업인수▲재벌계열기업인수▲7백만원이하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

주간女性 구독신청 833-2361

美, 北傀大使추방 考慮

유엔駐在 醜行 오남철逮捕에 강경책

【뉴욕=金泰雄특파원】미국은 24일 유엔에 공식성명을 제출, 미국흑인여자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북괴유엔대표부 3등서기관 오남철사건해결에 북괴유엔대표부 대사가 전혀 협조하지않고있다고 지적,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미국유엔대표부와 수사당국은 오남철체포에 필요한 모든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밝혔다.

정통한 유엔소식통들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위해 미국은 북괴유엔대표부대사 한시해의 추방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유엔에제출한 성명에서 오남철의 추행사건은 유엔공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번사건에서 오남철은 외교면책권의 보호를 받을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5일접수>

電話접수 722-4171

- 成均館및 儒道會總本部 2백13만원
- 蒼熙유리工業 吳仲根대표 外 1백44만원
- 공영토건 사우디36B 現場사원 1백11만원
- 새한産業(株) 金哲鍾대표 外 1백9만원

▲成均館및儒道會總本部 李載瑞관장외임원一同=2백13만4천5백원 ▲成均館顧問 朴濟鳳씨=20만원 ▲蒼熙유리工業(株) 대표이사 吳仲根씨外 임직원一同=1백44만4천2백60원 ▲공영토건(株) 사우디36B도로 현장근무직사원一同=1백11만8천3백80원 ▲새한産業(株)대표이사 金哲鍾씨外임직원一同=1백9만7천5백80원 ▲現代火藥商社 代表 張泰煥씨=10만원 ▲三成火藥商社 代表 朴長庚씨=10만원 ▲白蓮火藥商社 代表 孫大圭씨=10만원 ▲鍾路區鍾路5街225의37호 5가본사B 명신상회 박상민씨=10만원

◇李載瑞씨

◇金哲鍾씨

"韓·日經協 조속解決"

나까소네會見 外相 미야자와·아베物望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자민당은 25일하오 시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41회 임시당대회를 열고 나까소네(中曽根) 행정관리청장관을 제11대 총재로 선임했다.

나까소네 새총재는 26일하오 소집되는 衆·參의원 본회의에서 새수상으로 지명돼 이날중으로 새 내각을 발족시킬예정이다.

나까소네 총재는 이날하오 4시 첫기자회견을 갖고 韓·日경제협력문제에 언급『한국은 가장 가까운 중요한 나라이기때문에 韓·日간의 현안문제는 될수있는한 빨리해결하는것이 양국에 도움이된다』고 말해 對韓經協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까소네총재는 또 일정이 허용하는한 조속히 美國을방문, 美·日우호관계를 다짐하겠으며『美·日의 우호를 기축으로 아세아隣國과의 친선강화와 함께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까소네총재는 이날 黨3역인사에 착수했는데 다나까派의 이까이도(二階堂進) 간사장과 스즈끼派의 다나까(田中六助) 政調회장이 유임되고 총무회장에는 후꾸다(福田)派의 현 다나까가쓰오(田中龍夫)와 세도야마(瀨戸山三男)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外相에는 스즈끼派의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과 후꾸다派의 아베(安倍)통산상, 다나까派의 에사끼(江崎)前통산상이물망에 오르고 있다.

슐츠 美國務 2월初 訪韓

【워싱턴AP=聯】조지·슐츠 미국무장관이 아시아및 국제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현안들을 토의하기위해 내년 2월초 한국과 중공및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美국무성 관리들이 24일 밝혔다.

이 관리들은 지난 여름 취임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하는 슐츠장관은 중공방문을 통해 중·소화해문제, 臺灣문제, 캄보디아문제 및 미·중공관계의 잠재통에 관해 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또 아시아·아프리카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로런스·이글버거 국무성정무담당차관이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관심이 대단한데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고 밝히고 슐츠장관은 한국과 일본방문중 일본의 방위력증강문제에 관해서도 토의할 것으로 본인다고 말했다.

美, 레바논增派고려 外軍철수 도움되면

【워싱턴AP=聯】레이건미행정부는 레바논 중앙정부강화와 시리아·이스라엘및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레바논철수에 도움이 될수있다면 레바논에 미군을 증파하기를 적극 고려중이라고 미국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25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미군이 추가로 파견될경우 베이루트-다마스커스 公路를따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金總理 濟州순시

金相浹국무총리는 25일 하오 濟州道를 순시, 崔在榮지사로부터 道政 현황을 보고받았다.

金총리는 26일엔 中文관광단지와 濟州港및 공항 확장공사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방위비 變數 3百億

金부총리 81년GNP 6·4%로 떨어져

金埈成부총리는 25일『81년도 국민총생산(GNP)의 확정推計에따라 81년도 GNP의 잠정추계를 근거로 편성한 83년도 예산안중 防衛費 부문에 변동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이날 국회豫決委에서『81년도 GNP가 당초 잠정집계했던 7·1%보다 0·7%포인트가 낮은 6·4%로 떨어짐에따라 83년도 방위비예산을 삭감해야되지않느냐』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방위비예산중 3백21억원 규모의 調整變數요인이 이런점으로발생했다』고 밝혔다.

豫決委는 이에따라 새해예산안에 대한 計數조정과정에서 국방부측의 의견을 들은뒤 방위비부문에 대한 삭감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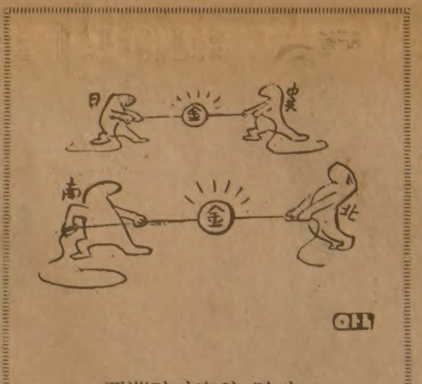
새해豫算 심의착수 豫決委, 小委구성

국회재무위 稅法小委의 稅法협상이 늦어져 2일간 空轉했던 국회 豫決委는 25일 하오 計數조정小委를 구성하고 새해예산안에 대한 조정심의에 착수했다.

計數調整小委(11人小委) 명단은 다음과같다.

崔洛道(위원장) 李漢東 丁時采 鄭宗澤 鄭石謨(이상 民正) 金台植 朴權欽 朴寬用(이상 民韓) 金永生 洪思德(이상 國民) 金吉俊(議政)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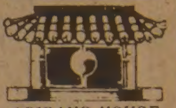
亞洲경기中의 경기…

地平線

10년전 서울市는「서울市政 10개년 종합계획」이란것을 발표하였다. 1972년부터 10년째되는 81년의 서울人口를 7백50만명으로 억제하고 人口밀도는 ㎢당 1만2천2백34명이 되도록 하겠다는「계획」이었다. 그러나 작년말까지의 서울人口는 8백36만명을 헤아려 세계 4위의「大都市」로 손꼽히게 되었고 人口밀도는 1만3천8백36명으로 가위 천하수위격이 되었다.▼최근 서울시 당국이 발표한「市政비교통계」는 轉出入결과로 생기는 인구증가가 하루 1천8백62인명, 출생과 사망에서 오는 자연증가는 4백25명 이어서 연간 순증가 15만5천4백37명에 달한다는것이다. 人口통계하자는 우리나라 인구「중심점」이 수도권을 향해 한창 부상하고 있으며 그 이동속도는 70~75년에 연간 평균 0·96㎞이던것이 75~80년에는 1㎞로 가속화 되었다고 밝힌일이 있다.▼늘어는것이 별로 다 좋은것은 아니나 그래도 성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동시에 그 성장의 그늘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함께 따르기도 한다. 民俗物에 밝았던 고 金和鎭옹은 서울의「川邊風景」이라하여 이런 글을 손일이 있었다.

〈淸溪川이 복개되기 훨씬전 개천에는 맑은 물이 흘렀고 川邊은 몹시 분주했다. 연두색 장옷을 손채 부지런히 빨래방망이를 내리치던 수백수십의 아낙네들. 석축을 따라 널린 5색 빨래의 장사진, 川邊은 도심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없이 고마왔다. 때로는 배추 무우도 씻고…〉▼지금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계천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거지반 모를것이다. 더구나 시내복판 개천에서 배추, 무우를 씻었다면 안믿을지도 모른다. 이 川邊을 예전에는 人力車가 달렸다. 자동차가 있어도 人力車를 모두들 즐겨탔다. 그래서 당시 경해 人力車들을 많이 끌었다. 「한도 인력거꾼」이라 「학도」들이 「아르바이트」하여 이「고학생」을 妓女들이 특히 동경하고 흠모까지 했다한다. 그 학도인력거꾼들이 지나가면 요정의 기생은 일부러 車를 세워 요정에서 발급하는 車賃을 건네주며 말을 걸곤 했다는것이다.▼인정 호젓한 옛얘기들이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너무 삭막하기만하다. 택시운전사나 손님이나 모두 사무적이고 상업적이다. 좀 많은 개천이 흐르지 않더라도 서울의 순박한 인정미라도 「건져가」에 되살아났으면 싶다. 嬌呱, 嬌착, 발전…하는 서울에서 잊어들고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것을 集計해볼수는 없을까.

한국일보
우리의재산은건강한우리의몸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CHRISTIE) 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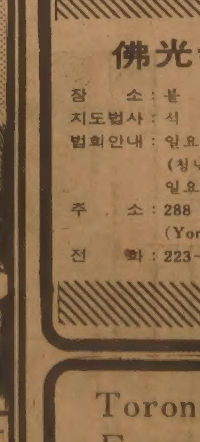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The Permanent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 (B)488-2444 (R)759-4560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빙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월~목 9:30AM~7PM
금 9:30AM~8PM
토 9:30AM~8PM
635 BLOOR ST. W
☎: 531-2236(B) 886-0722(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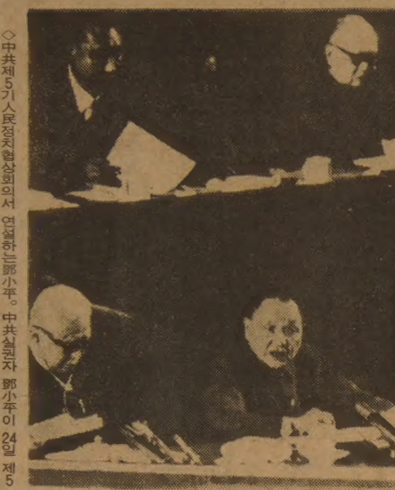
中共、오늘 全人代 5차회의
國家主席制 부활
毛澤東단절… 새憲法 채택
6차經濟계획이 主議題로

【北京AP=聯】국가주석제부활을 골자로한 신헌법을 채택할것으로 보이는 중공의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제5차회의가 26일 北京에서 개최된다.

제5기 全人代의 마지막회의로 약3천5백명의 대표가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혁명의 시작과 함께 폐지된 國家주석직이 부활될것으로 보인다。국가주석제의 부활은 毛澤東시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수상 趙紫陽이 제출할 제6차 5개년경제계획이 주요 의제가 될것이며 경제장관들이 82회계연도 예산집행내용과 8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게된다.

관측통들은 지난주 全人代 상무위원회에서 吳學謙과 張愛萍이 신임외상과 국방상으로 임명되는등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가 이미 단행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내각개편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中共제5기人民정치협상회의서 연설하는鄧小平。中共실권자 鄧小平이 24일 제5기인민정치협상회의 5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北京24日AP합=聯】

蘇、간부회의장 空席내막
「1人體制」노린 時間벌기 作戰
늦어도 내년봄까지 반발勢力제거 목표

유리·안드로포프가 간부회의의장에 就選되어 자신의 1人體制를 서둘러 구축할것으로 예상됐던 소연방최고회의가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채 24일 폐막됐다.

소련 역사상 최고회의가 국가元首격인 간부회의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空席으로 놔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드로포프가 간부회의의장에 就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안드로포프가 브레즈네프장례식이 거행되기도 전에 黨서기장에 취임, 막강한 실력을 과시하긴했지만 간부회의의장까지 겸직해 一人體制를 굳히기에는 아직은 지지기반이 미흡하다는 해석이다. 즉 브레즈네프 死後에 전개되고 있는 크렘린의 권력투쟁이 안드로포프의 일방적승리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얘기이다.

또다른 한해석은 안드로포프는 군부와 소련비밀경찰(KGB)의 전폭적지지를 등에 업고 벌써「크렘린宮의 제1人者」자리를 굳혔으며 이번 간부회의의장 空席에는 안드로포프의 遠謀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안드로포프는 너무 섣급하게 1人체제구축을 서둘경우 당내반발을 사서「反안드로포프戰線」어 형성될것을 우려했고 실권없는 형식상 權座인 간부회의의장 자리가 당분간은 자신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점을 계산에 넣었다는 것이다.

그는 간부회의의장 겸직을 금년말이나 내년봄으로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이기간동안에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들고있다는 추측이다.

안드로포프가 회의 개막직후 간부회의의장이 될수 있는 39人으로 구성된 간부회의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점과 자신의 심복인 알리예프를 次期수상이 될수있는 제1부수상에 심어놓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간부회의의장직을 놓고 경합을 벌였던 콘스탄틴·체르넨코를 유명무실한 직책인 최고회의 외교위원장에 임명、경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한편 간부회의의장설이 나돌던 그로미코외상은 간부회의의원명단에서 빠져있다.

관측통들은 현재 간부회의의장이 될수 있는 인물은 오로지 안드로포프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만약 안드로포프가 이번에 간부회의의장까지 겸직했었다면 브레즈네프가 죽은지 불과 2주만에 1人체제를 구축한셈이 된다。브레즈네프는 두직을 겸직하는데 13년이 걸렸다。정보통으로 계산이 빠른 안드로포프가 이러한 시차를 계산에 넣지 않았을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안드로포프는 또이번 회의에서 자신의 제일가는 심복인 페도르추크 KGB의장을 처음으로 연단에 등장시켜 은연중에 실력을 과시했다。

소련은 건국60주년 기념일인 12월30일이전에 黨중앙위전체회의에서 연방 최고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있다。

관측통들은 이때에 가서 최고회의간부회의의장의향방과 안드로포프체제의 윤곽이 확실해질것으로들 점치고있다。

【李炳圭기자】

蘇軍포로 國赤인도
아프간 叛軍단체서

【이슬라마바드AP=聯】소련군에 저항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회교반군단체들은 소련군 포로2명을 국제적십자사에 인도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니콜라이·긴나디·니콜라이위치(19)와 바우르바·리마스·빅토르위치(22)등 소련군포로 2명을 아프간회교반군단체들로부터 지난22일 인도받았으며 이들은 같은 날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회교반군소식통들은 그동안 약12명의 소련군포로들을 국제적십자사에 인도했다고 전했으나 국제적십자사 측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않고있다.

美MX미사일 배치 政治的고려가 作用

【워싱턴AP=聯】레이건 미대통령이 지난22일 신형 MX핵미사일 1백기를 밀집배치하기로 결정한데에는 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워싱턴의 정통한 분석가들은 보고있다.

對西方국경 保安에는 강경
蘇、中共과는 緊張완화 희망

【모스크바UPI聯=聯】소련의 고위관리들은 24일 對西方국경안보에는 강경태도를 보였으나 중공과의 국경지대에 대해서는 긴장을 완화시킬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게오르기·코르니엔코 소련부외상은 이날 연방최고회의에서 KGB(국가보안위원회)의장 비탈리·페도르추크가 제출한 새국경법과 관련하여 연설을 통해『우리는 7천km에 이르는 중공과의 국경을 우호와 선린관계가 수반돼있는 국경으로 만들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면서『최근 中·蘇국경의 분위기가 보다 안정되고 능률적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시리아의 同時撤軍거부 결정으로
이·레바논 政治協商 벌일듯
現地분석가 전망

【베이루트ANSA=聯】레바논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동시에 철수케 하자는 하비브美중동특사의 제의를 시리아가 거부키로 결정함에따라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직접 정치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이곳 분석가들이 24일하오(현지시간) 전망했다.

분석가들은 레바논-이스라엘의 정치회담이 곧 시작될수 있다면서 이날 저녁 제마옐대통령이 주재하는 레바논각의에서 이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이루트의 신문들은 이날 아침 레바논정부가 이미 이스라엘軍철수를 협의할 위원회의 위원장에 정치인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는데 정통한 소식통들은 가산·투에니前유엔 주재대사가 내정되었다고 말했다.

이곳 소식통들은 레바논은 양국협상이 군사 대표간이아니라 정치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이스라엘의 조건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한 양국위원회가 베이루트와 예루살렘교외에서 교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佛·埃1차頂上會談 中東平和문제 논의

【카이로ANSA=聯】미테랑프랑스대통령은 2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이집트를 공식방문하기위해 카이로에 도착、곧 무바라크대통령과 제1차정상회담을 가졌다。

미테랑대통령은 3일동안 이집트에 머무르는 동안 무바라크대통령과 약10시간에 걸쳐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레바논사태를 비롯한中東평화문제와 양국간의 상호관심사를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社說

關心 큰 나까소네 執權
—韓日관계 調整에 前向性 보이길

등장할 인물이 마침내 등장했다는 느낌을 짙게하는 가운데 24일 실시된 日本의 집권 自民黨 차기總裁 예비선거는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64)씨를 東京정계의 정상에 부각시켰다。오늘 衆·參 양원회의에서 首相지명을 받는대로 곧 組閣에 착수하는 동시에 黨3役(幹事長·政調會長·總務會長) 人選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illegible]體制」를 표방하는 派閥均衡인사의 솜씨도 심심찮은 관심사로 되겠으나, 그런대로 참신미있고 행동력있는 짜임새에 주력 하리라고 예측된다。

나까소네씨의 집권은 우선 自民黨내 복수派閥간의 力學관계에 본는 主流3파의 결속으로 풀이할수도있으나 그것만으로 간단화될바 아니다。그의 관록과 知名度를 지탱하는 강력한 개성적 자질에 더하여 시대적요청을 직시하려는 政治的信條중의 몇가지 긍정적 요인을 부언할수있으리라는것이다。오늘의「不確實時代」에 21세기를 내다보는 새方向感覺 정립이 필요하다고하는 黨內여론이 그의 새 리더십에 상당한 기대를 모은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老練하면서도 패기있는 保守政治人으로서「中道右派」를 자처해왔다。또 親美·知韓의 反共政治人으로서 韓國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알려져있다。한편으로 日本의 平和憲法개정과 防衛力증강을 누차 公言하였고、다른한편 日本의 중대懸案인 行政改革등 庶政一新에 관하여 상당히 進取的인 一家見을 가졌다고 한다。동시에 그의 政治行脚에 대해선「기회주의」설할도 자주 지적돼 온 바이다。

하기야 日本의 議院內閣制에 있어서는「迫力있는 리더십」에도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고, 본시 日本의 政治文化에서는 변전하는 政策環境에 대한 유연한 適應노력이 숭상되는 일면이 뚜렷하다。그의「해바라기」性向도 따지고보면 黨內 제4위의 약소派閥을 거느리고 權座에 오르기위한 편법이라고 관찰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까소네內閣의 政策路線은 일단 스즈끼(鈴木)前首相이 조심스럽게 다져온 軌道설정으로부터 갑자기 크게 일탈할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하나「黨內결속」의 회복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새 內閣이 다루어야할 內外難題의 중첩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가지 중대한 斷案이 불가피시된다。

안으로는 赤字財政을 세금인상없이 국채발행추가없이 재건해야하며, 낭비없는 效率化를 기필하는 行政改革도 더이상의 천연을 불허하게시리 되어있다。밖으로는 美國을 비롯한 西方제국과의 貿易마찰을 완화하며 이른바「非關稅障壁」을 철폐하라는 국제여론에 대응하는 青寫眞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것이다。防衛力증강도 美國의 줄기찬 요구와 국내의 저항요인 간에는 현저한 대조가 느껴지는 터에、東南亞제국의 위구심리도 홀시할바 아닌 지경에 이르렀다。

韓日관계로 말하면 日本檢定교과서의 歷史왜곡 시정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된 감촉속에 나까소네內閣이 出帆하게 되었으니 부담감은 덜수 있겠다。日本의 새首相이 知韓派人物로서 韓國에 두터운 交分을 가진 人士들도 있다는 데서 新局面개척이 가능할것 같다。양국간의 懸案인 經協문제의 매듭이 새해에 이루어질수 있으리라고 관측된다。

오늘의 日本人은 先進國隊列에 참가한 經濟大國이라는 자신감에 뒷받침되면서 격동을 수반한 커다란「변화」는 누구도 바라지않는 느낌이다。하나 貿易마찰과 防衛力문제、그리고 財政재건과 行政개혁은 피치못할 당면과제임에 틀림이없다。나까소네內閣의 出帆에 즈음하여 韓日관계의 善隣기조 회복을 기대하는 동시에 그「保守속의 改革」을 눈여겨 지켜보고자 한다。

GNP 成長率 6%
—製造業분야의 不振을 重視해야

아직도 경제각부문에 깔려있는 잠재적 成長力을 發顯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을 저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성장을 指向하는 적극적인 경제운영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경우 유의해야 할점은 部門間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방만한 通貨관리등으로 物價안정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配慮하는것이라 하겠다。

韓銀이 잠정추계한것을 보면 지난 3·4分期中의 국민총생산(GNP) 증가율은 6.4%고 올해 들어 9월말까지의 전체평균 성장률은 5.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다른한편 앞서 7.1%로 잠정발표됐던 지난 81년중의 최종적인 실질성장률은 6.4%로 잠정수치보다 0.7%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GNP추계도 상대적으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지난 3·4分期중 각부문별 성장률을 가려보면 제조업이 3%성장으로 부진한 반면, 건설업은 27.1%로 크게 늘어났다。농림어업부문에선 8.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전체 성장률을 6.4%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기여한것으로 풀이된다。

對內外에걸쳐 불황요인이 가시지않고 있는데도 우리의 국민총산이 비록 跛行的이나마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은 기뻐할만 하다。또 여러가지 推移로 미루어 앞으로 연말까지(4·4분기)도 상향세를 늦추지 않을것이므로 당초 목표했던대로 올해 GNP성장률 6%달성은 무난할것같이 여겨진다。그러나 지금보다 수출실적이 더 나빠지거나 민간부문의 위축이 계속되면 목표成長値에 미달할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3·4분기 성장을 지탱해온 건설업이나 농림어업부문의 성장을 내용면에서 따져 볼때 그것이 자생적 활력에 의하여 성장세로 돌았다고만 하기는 어렵다。보다도 정부의 자극조치에 힘입거나 기후적 요행으로 달성된것임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알게하는 것일듯도 하다。전체 산업생산면에서 볼때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농림어업이나 건설업에 의하여 성장이 주도된것은 불안한 요소를 내포한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産業高度化과정에서 성장의 底邊을 형성하는것으로 간주되는 鑛工業가운데 보다 큰 寄與度를 갖고 있는 제조업성장률이 고작 3%정도로 작년동기 보다 뒤떨어진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이는 국제경기의 장기침체 때문에 수출이 부진하고 동시에 민간의 설비투자를 포함해서 기계설비등、관련파급효과가 큰 산업부문이 순조롭게 성장치 못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것이다。內需부문에서도 민간소비가 저조한까닭에 도매·소매업을 포함한 서비스부문의 부진이 여연해 보인다。

우리처럼 국제수지를 圖謀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이룩하자면 수출산업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와병행、수출주도적인 민간投資기운이 지속되어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를유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같은 민간부문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도 병행해야 하지만 민간투자와의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게 되면 浪費 또는 경제적비효율로써 비판돼 마땅할 것이다。

두말할것없이 우리의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그를 위해 특히 몇가지 留意點을 잊은 일은 없어야겠다。우선 성장의 牽引車역인 수출진흥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속히 강구할 일이다。종전처럼 督勵하는 식의 수출진흥대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그와함께 物價안정을 계속 공고히 다지고 非인플레的인 財源조달을위한 획기적 대책조치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記者의 눈
日本的 정권교체

일본에 나까소네가 이끄는 새政權이 탄생했다。지난1개월남짓 단일후보옹립 협상이 깨지면서 주류、비주류가 엄청난「돈」을 쏟고 기발한 戰略들을 동원한끝에 일단 치열한 선거戰은그막을내린셈이다。

나까소네는 이제 일본이란 경제대국의 權座에 앉아 大權을 행사하게됐지만 행정개혁、재정문제、그리고 防衛力 증강을 둘러싼 對美관계등 많은 險路가 가로막고있음을 보면 결코「순탄치만은 않은 앞날」을 실감케한다。

그건그렇고、이번의 선거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자는 우리하고는 다른 소위「日本的정권교체」란 그들의 풍토를 다시한번 實感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게됐다。

우선 일본의 최근10年史를 돌이켜보면、72년7월사또·에이사꾸(佐藤榮作)가 7년8개월의 정권끝에 은퇴하자 그뒤를 이을 후보로 다나까(田中)、후꾸다(福田)오오히라(大平)、미끼(三木)가 등장했다。바로이때 나까소네가 다섯번째의 후보지망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때 나까소네는 자신의 출마를 포기한채 다나까를 밀어 소위 중간파의「눈사태지자현상」으로 얼마안가서 다나까가 록히드사건으로 자리를내놓게되자 미끼(三木)가 뒤를이었고 후꾸다-오오히라에 바통이 넘겨지기까지 自民黨안에서는 左右派、또는 매派、비둘기派가 서로 정권을잡기위해 각축전을벌였고 성분으로 보면 파시즘에 가까울이만큼강경파에서부터 온건한 사회주의자들까지 그야말로 各樣各色、광범위한 파벌과 人脈으로 얽혀「난장판」처럼 보이기도 했던 自民黨。

그러나 한정당안에서 그처럼 복잡미묘하고 群雄割據式 정권다툼이 있긴하지만 결국은 순서대로 차례가오면大權을 차지하는것。때에따라서는 政變이 일어났을때 금방이라도 자민당이 산산조각이 날것같으면서도 분열되지 않는것。어느 한派가 정권을 잡게되면 반대파를 반드시 입각시켜 擧黨체제로 운영해나가는것。일단 선거전에서 패배하면 깨끗이 승복할줄 아는것등이 바로 自民黨이란 보수정당의 특징이기때문이다。

그래서 일본국민들도 自民黨을 얘기할때면『여유있는집에서 정권투쟁 하느라 편할날이 없는것같지만 보이지않는 질서와 규율과 전통이있다』고 말한다。

싸울때는 정정당당히 싸울줄아는 정치인、패배했을때는 승자에게 승복할줄아는 정치풍토、파벌이 많다고는하지만 派閥(黨)의 혼돈림을 용납하지않는 단결력、그렇기때문에 세월이바뀌면 돌아가며 大權을 쥐는 일본의정치풍토에 그야말로 日本的인것을 새삼 느끼는것이다。

【金湧精외신부장】

尹潽善씨 어제歸國

尹潽善前대통령은 40여일간 유럽과 미국방문을마치고 부인 孔德貴여사및 尹起大의원(民韓)과함께 25일저녁귀국했다.

人事異動

文公部 ▲홍보조정실심의관 崔三卿(국립중앙박물관사무국장)(25日字)

勞動部 ▲근로기준국장 申昔奎▲직업안정국장 崔喆浩▲노동보험국장 張宗寬▲감사관 沈大燮(이상局長轉補)▲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 金濟憲▲노동연수원장 金相東▲국립중앙직업안정소장 金秖池▲직업훈련국장 徐相善(이상副理事官승진)▲총무과장 具然春▲기획예산담당관 尹錫春▲행정관리담당관 許慶霖▲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曺舜文▲노동조합과장 成鶴祚▲노사협의과장 盧俊錫▲근로기준과장 孫元植▲산업안전과장 姜斤熙▲고용관리과장 鄭宅周▲해외고용과장 金南阜▲훈련기획과장 李鍾秀▲공공훈련과장 辛洪珪▲보험관리과장 崔昶植▲보험징수과장 金松子▲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趙日來▲서울동부〃趙炳文▲서울서부〃金重華▲서울남부〃安榮秀▲서울북부〃卞鎬奎▲서울관악〃丁梡洙▲부산중부〃金汶昌▲부산동래〃金桂淑▲수원〃權慶容▲부천〃李贊珪▲전주〃李永雨(이상書記官전보)▲노동보험국재해보상과장 趙元皇▲청주지방사무소장 趙昌熙▲마산〃孫京鎬▲광주〃金成武▲국립노동과학연구소기술지도과장 金在英▲부녀소년과장 全在姬▲사업내훈련과장 李秀夫▲기획관리실통계담당관 金元培▲태백지방사무소장 金亮中(이상書記官승진)▲근로기준국장 朴弼洙▲직업안정국장 金容海▲노동보험국장 吳永郁(이상의원면직·26日字)

國稅廳 ▲光州지방국세청장 李永相(大田지방국세청장)▲大田지방국세청장 黃元五(국세청근무)(29日字)

水協 ▲理事 鄭東元(유임)(24日字)

농진청 ▲시험국연구관리과장 金剛權▲원예시험장 감자과장 韓秉熙▲고령지시험장원예과장 金正幹(26日字)

서울市 ▲지하철운영사업소장 金文鏞(직무대리)(25日字)

市敎委 ◇교장급▲正心국교 李勳徹▲空港국교 李得炯▲楊明국교 鄭南杓▲龍踏국교 金炳熙▲中馬국교 曺順永◇교감급▲南部교육구청 安順姙▲江南교육구청 李順根▲西部교육구청 李奉根▲南部교육구청 鄭達根▲東部교육구청 賈在洪(24日字)

本社來訪

▲沈載植씨(國軍弘報管理所長)人事▲金景來씨(大韓아이소풀라스트會長)아이소핑크斷熱材공장준공 인사차

政局往來
나까소네 당선…各黨반응은 모두 협력증진 기대

◆民正·民韓 나까소네氏 당선환영

各黨간부들은 나까소네(中曾根)씨가 日本自民黨총재로 당선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韓日관계가 새로운轉機를 맺게 되기를 기대。

民正黨의 李載濚대표위원과 權翊鉉사무총장은 25일상오『당선을 축하하며 귀하의 영도력아래 韓日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는 祝電을 보냈다。

金瑢泰民正黨대변인은『앞으로양국 執權黨간의 활발한 대화를 통해 東北亞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協力관계형성에 기여해줄것을 기대한다』、金珍培民韓黨대변인은『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고 東北亞의 안정에대한 경제大國으로서의 응분의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논평。

국회외무위의 朴東鎭위원장과 李萬燮의원(국민)은『나까소네총재는 한국에대한 이해도 깊을뿐만 아니라 對韓인식이 올바른 사람이기때문에 韓日간의 진정한 선린관계가 다져지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고 許景九의원(民韓)은『그는 최근 수년내의 前任者들보다 비교적 국제감각이 있는 인물로 對韓정책에 있어서도 스즈끼(鈴木)정권때보다 적극성을 띠게될것같다』고 전망하기도。

◆흙구덩이에 빨려들어갈 필요있나

25일 民韓黨 확대간부회의에서는 實名制수정案의 국회제출을 확인하면서 實名制에 관한 民正黨의 태도를 비난。

柳致松총재는 이 자리에서『여당측은 이미 換骨奪胎된 實名制에 또다시 假想立法을 시도하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면서『그토록 實名制실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합리적인 우리당의 修正案을받아들여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그는 이어『도대체 급격한 變動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의 경제風土에서 4년뒤에나 실시여부를 검토할 假想立法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하다』면서『民韓黨은더이상 정부·여당의 시행착오를 傍觀하지 않을것』이라고 거듭 강조。

林鍾基총무 金銘圭정책심의회의장등도『국민경제의 보호란는 차원에서 民正黨측과 떳떳한 理論대결을 벌일 때가 됐다』『實名制문제가 국민의 士氣와 경제에 얼마큼 크나큰 害惡을 끼쳤는가를 짚어 볼때가 됐다』고 주장、적극 공세。

한편 劉沃祐부총재 朴炳一의원등은『實名制란 진흙구덩이에 우리마저 빨려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修正案제출의 無用論을 펼쳤으나 少數의견으로 不發。

◆국민당輕減위한의지보여주자

새해예산안의 削減규모를 논의하기위해 25일상오 열린 국민당 당무회의는 그동안 국회豫決委에서의활동 실적을 분석하면서 民韓黨보다 예리한 眼目을 발휘했다고 自讚。

이날회의는『막바지에 이른 예산국회에서 국민부담의 輕減을 위해 노력하는 黨의 의지를 보여주자』는 金鍾哲총재의 격려로 시작되어 별다른 論難없이 끝났는데 李東鎭총무는『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아무도 언급을 하지않던 국방비삭감을 우리당에서 처음 거론했다』고院內활동을 보고했다。

李총무는 이어『국민당은 처음GNP의 6.04%에 달하는 국방비예산중 2백28억원의 삭감을 요구했으나 최소한 1백50억원은 삭감되어야하며 정부·與黨도 이를 긍정적으로받아들일것으로안다』고설명。

金永生豫決委간사는『우리당의 삭감요구案은 民韓黨도 손못댄 예비비 부문까지 따져서만든 합리적인 案』이라고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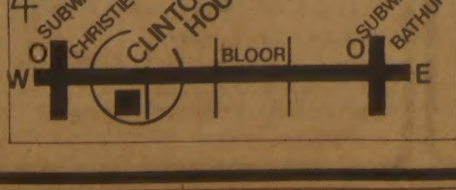
봄·여름·가을 그리고 겨울

크링룸 BLOOR 에서 만납시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150명 수용의 메인홀
□25명~50명 수용의 연예홀
□각종파티, 동창회
□각종모임, 계

CLINTON HOUSE
693 BLOOR ST.W.
535·9541



나까소네政权 <上>

「스즈끼宿題」로 四面楚歌

「록히드裁判」등 큰苦憫 行政改革도 떠맡은 셈

일본의 집권자민당은「목침돌리기」처럼 5대파벌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향유하고있다. 대체로 다나까(田中) 스즈끼(鈴木) 후꾸다(福田) 나까소네(中曾根) 고오모또(河本)등 5대파벌이 이합집산하여 3개파벌이 뭉쳐 주류를 형성하고 나머지 두파벌은 비주류로 남아 차기정권을 노린다. 주류는 총재와 수상자리를차지하지만 비주류는 주류와함께 정권경쟁이 끝나면 거당체제를 구축하여 야당의 對與공세를 봉쇄한다.

다나까前수상이 록히드사건으로 도중하차한뒤 탄생한 미끼(三木)내각을 제외하고는 제1파벌인 다나까군단이「정권탄생」의 킹·메이커역할을 해왔다. 나까소네정권의 탄생도 예외가 아니다. 나까소네총재가 예상을 훨씬 넘어 총재예비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다나까군단을 주축으로한 주류의 행동력과 결속에의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5대파벌중 의원수로 보아 4번째인 나까소네씨가 정계에 투신한지 36년만에 수상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다나까군단과 스즈끼파의 협조없이는 실현될수없는 것이었다.

나까소네정권의 탄생은 이런 관점에서 다나까前수상의 건재를 과시한 반면에 후꾸다前수상의 위신을 하강시킨결과를 냈다.

26일 衆·參의원본회의에서정식으로 수상으로 지명될 나까소네총재는 스즈끼정권이 넘긴 정치적과제를 많이 안고있다.

스즈끼정권이 내세운 행정개혁과 재정재건 그리고 다나까前수상의 록히드재판과 정치적윤리의 확립, 국제적무역마찰과 방위력증강등 당면한 문제들이하나같이 자칫잘못하면 나까소네정권을 넘어뜨릴수 있는 난제들이다.

누적된 일본의 國債는 90조에 이르고 그이자만도하루에 1백20여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같은 적자재정을 재건하기위해서 작은 행정부와 복지후생비의 삭감등을 단행할수밖에 없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할것인가가 문제이다.

1조엔의 적자를 내고있는 國鐵의 재건문제와함께 지방철도선의 폐지문제는 노동단체를 비롯한 지방유권자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스즈끼정권이 그추진을 미뤄왔던 난제의하나이다.

『행정개혁과 재정재건을 정치적생명을 걸고 실현하겠다』던 스즈끼정권이 실현하지 못했던 과제등을 나까소네정권은 그대로 유산으로 떠맡게 됐다. 관료와 노동자와 유권자가함께 반대하는 행정개혁을 과연 나까소네정권이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가 미지수이다.

나까소네정권은 세계적인 불황속에서 재정재건과 함께 행정개혁을 단행해야하며 무역마찰과 방위력의 증강등 美·日우호관계를증진해야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있다.

연간 3백억달러를 넘는 對日무역적자를 내고있는 미국은 일본에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1천마일의 해상로에대한 방위를 위한 자위력증강을요구하고있다. 특히 유럽에서도 對日무역적자에 의한 무역불균형과실업증대를들어 일본의 시장개방과함께 보호무역주의가대두되어일본은 국제사회에서四面無親의 어려운 처지에빠졌다.

미국이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의 의석이다수진출되어 나까소네정권은 무역불균형에대해 한층 무거운 압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總評등 노동단체와 사회당등 야당은 벌써부터 매파적인 색채가 강한 나까소네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할것을 선언하고 있어 당장 26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심의에 파란이 일어날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나까소네씨가 평소 평화헌법을 제정하여 軍備증강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보아 美國의 주장과 함께 자위력의 대폭적인 증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 이를 저지하기위해 예산투쟁부터 벌일계획이다.

◇넥타이 매만져주는 나까소네夫人 日本 自民黨의 새총재를 뽑기위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행정관리청장관이 25일 아침 집을 나서기전 부인 쓰다꼬여사가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있다. 【東京25日AP=聯合】

「防衛力증강」문제는 해결 몰릴땐 議會해산 할지도…

나까소네정권의 탄생이 다나까군단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다나까씨의 영향력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2월 다나까前수상에대한 록히드재판의 구형공판과 역시 내년 가을에 있을 다나까씨에 대한 1審판결에서 다나까전수상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민당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것으로 예견된다.

나까소네정권에 다나까前수상이 관련된 록히드재판을 이렇게 넘길것인가가 난제중의 난제로 꼽히고있다. 야당은 내년2월에 논고될 다나까씨에 대한 구형공판에 대비하여 내년초 다나까씨의 출신구인 니이가따(新潟)와 東京에서 대대적인 데모를 벌여 잊혀가고있는 다나까씨에 대한 록히드재판을 계기로 자민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7월에는 참의원선거가 겹쳐있어 이선거에서 만일 자민당의 석수가 줄어들 경우 그책임문제를 에워싸고 나까소네정권에 대한 인책공세가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난제를 극복하기위해 나까소네정권은 기선을 제압하여 내년6월 국회를 해산, 참의원선거와 중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80년여름 衆·參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던것처럼 이번에도 자민당의 압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자는 論이 벌써부터 대두되고있다.

다나까前수상은 나까소네 신총재를 만난자리에서 『내년은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가 될것이다』고 단언하여 벌써부터 격동하는 정국을 점쳤다.

나까소네정권은 이렇듯 국내에는 행정개혁과 재정재건·총선거·록히드재판등 어려운문제가 산적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무역마찰 해소와 방위력증강등의 난제를 안고있어 파란이예상되어 단명을 예견하는 사람도없지 않다. 그러나 나까소네정권이 선수를 쳐서 국회를 해산하고 衆·參의원동시선거를 실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을때에는 오히려 역전하여 장기정권으로 달음질칠가능성도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핑퐁作戰 나흘만에 稅法협상 劇的타결

—3黨간사「合意」발표까지

民正 法人稅등서 野黨 체면 세워
民韓 時間끌기 지쳐「쥐꼬리」삭감

○…연4일째 협상과 절충으로 고집과 줄다리기를 거듭하던 국회 재무위 稅法협상은 25일하오4시30분께 稅法小委3黨간사회의서 극적합의를 봄으로써 숨가쁜 협상드라머에 종지부를 기록.

金鍾仁小委위원장은 이날마지막 간사회의가 끝난뒤 상기된 표정으로 與野간의 조정내용을 발표하면서 한숨을 몰아쉬기가 바쁘게 李鍾贊총무에게로 달려가 결과를 보고한뒤 곧小委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

소득稅法과 附價稅法및 法人稅法의 稅率의절충을 싸고 陣痛을거듭해온 稅法小委는 25일하오부터 타결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朴泰俊재무위원장 金鍾仁稅法小委위원장및 民韓黨의 李載根 金在暎 金文元의원등의 발걸음이 눈에띄게 加速化.

이날상오 3黨총무회담의 정치 절충이 不發로끝난뒤라 小委에 절충권을 다시넘김으로써 하오2시30분께부터 시작된 여야간의절충은 民正黨측의 『곧 합의될것』이라는 예고와 民韓黨측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비공식 발표가 잇달아나오면서 本格化.

하오2시가 조금지나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자』고 재무위로 들어선 民韓黨의원들은 『法人稅率을 정부안보다 8%인상할경우 발생하는 8백17억원의 稅收증액분은 國債발행축소에 충당키로하고 附價稅法개정안의 계류로 생기는 3백56억원의 稅收증가분은 저소득층에대한 稅收경감분으로 돌려주면 우리는 稅法案에 합의해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民韓黨 稅法小委위원들이 林鍾基원내총무와 熟議후 가져온 카드로 당초 民韓黨이 소득세에서 삭감할것을 주장했던 1천5백32억원보다 크게 적은 액수로서 李載根간사는『더이상의 양보는 있을수 없다. 이것마저 들어주지 않을경우 우리는 小委를 보이코트하겠다』고 엄포.

○…곧 이어 재무위 전문위원실에서 朴泰俊 재무위원장주재로 金鍾仁 小委위원장 民韓黨의 李載根 국민당의 趙炳鳳 議政同友會의 李洙鍾의원등이 참석한 간사회의에는 異例的으로 姜慶植재무장관까지 등장함으로써 최종妥結이 임박했음을 시사.

10여분후 밖으로나온 金小委위원장은 얼굴을 활짝펴고 『거의 다되어간다』고 모처럼 밝은 표정.

이회의에서 民正黨측은 附價稅法개정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3백56억원을 소득세 경감분으로 돌리는데 難色을 표한것으로 알려졌는데 金小委위원장이 절충을 낙관한것은 서로 어느정도의 양보를 하겠다는 心證을 갖고있었기 때문으로 주위에서는 풀이했다.

이자리에서 국민당의 趙의원과 議同의 李의원은 『소득세累進단계를 정부案보다 1단계올려 15단계로하는 생색을 낼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행대로 17단계로하고 高소득층에重課하고 低소득층의 稅부담을 경감시키자』고 제의.

이에 朴위원장은 『실무선에서 검토해보는것이 어떠냐』고 姜장관에게 넌지시제의했고 姜장관은 白源九稅制국장에게 累進단계를 늘림으로써 생기는 稅收증감을 검토해볼것을 지시했다.

이순간까지도 民韓黨의 李載根의원은 회의장밖으로 나올때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煙草를 피우며 특히 附價稅法개정안을 계류시킬경우 民韓黨이 입을 損益분기점을 찾느라 골몰.

李의원은 小委회의실에서 결과를 대기하고있던 金在暎 金文元의원을 찾아가 『民正黨이 附價稅法개정안의 계류로 발생한 3백56억원을 돌린다는데 반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고 두金의원은 『附價稅法개정안의 계류를 우리가 주장하면 이개정안의 계류로 더많은 稅金을내게되는 사업자들로부터 욕을얻어먹는만큼 우리가 계류를주장했다는 얘기가 나가서는 안된다』고 난색.

그러면서 民韓黨의 3의원은 『총무와 다시 논의할수밖에없다』고 총무실로 내려갔고 朴위원장을비롯한 다른黨간사들은 民韓黨의원들이 돌아올것을 기다리며 절충이 아닌 閑談으로시간을때웠다.

○…간사회의가 절충을 계속하는 동안 民正黨의원들은 재무위원장실에서, 재무부관리들은 복도를 서성이며 절충결과를 기다렸다.

재무위원장실에서 하오 2시부터 기다리고 있던 民正黨의원들은 『벌써 3시가 되었다』『두시간을 허비했다』면서 『마냥 기다려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는 식으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런 民正黨의원들의 불만을 의식한듯 金小委위원장은 자주 재무위원장실에 모습을 나타내 『잘되어가니 조금만 기다려달란』고 말하면서 절충과정을 설명하느라 부지런을 피우기도 했다.

○…林鍾基총무를 만나러 내려갔던 民韓黨의원들은 50여분후 다시3층 재무위전문위원실에 모습을 나타내 이같은 民韓黨측 고충을 설명하고 『民正黨이 附價稅法을 계류시키는 수정안을 내달란』고 요청.

그러면서 李간사는 金小委위원장에게 『우리끼리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해보자』고 말한후 金小委위원장을 붙들고 밖으로 나갔다.

단독密談에서 金小委위원장이 『民韓黨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民正黨이 계류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자세를보이겠다』며 『이제 그만 얘기하고 결말을 짓자』고 말하자 李의원은 『총무에게 OK를 받아 오겠다』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다시 총무실로 내려갔다.

이날 民韓黨 稅法小委의원들은 타결을 전제로 움직이는듯 개별행동을 삼가하고 꼭 3명이 모여 의논하고 똑같은 행동을 취해 눈길을 끌었고 이들은 스스로는 3銃士라고 은근히 團合을 과시(?)했는데 폭행사건에 有關된 朴完奎의원은 끝내 不參했다.

한편 林총무와의 최종협의를 마치고 간사회에 들어선 民韓黨의원들은 지금까지 대체적 합의사항으로 되어있던 ▲稅額공제확대 ▲근로소득공제액 최저한도액인상폭등을 그대로 최종확인하고 소득세 누진단계를 17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국민당과 議政동우회의 주장을 받아들인후 『附價稅계류로 생기는 3백56억원중 절반정도를 低소득층의 稅부담경감에 轉用시켜달라』는 제의를 했고 이를 民韓黨이 수락함으로써 마라톤절충은 사실상 幕을 내렸다.

간사회의에서 이같은 절충을본뒤에 金小委위원장은 슬그머니 기자들앞에나타나 합의사항을 간단히 발표한후 『小委전체회의에서 아직결정을 보지않았다』는말로 구체적 절충전개과정을 회피했고 지금까지 발표때마다 입회했던 民韓黨의원들도 모습을 보이지않아 그동안 치열했던 절충과정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날상오 稅法案문제를 타결짓기위해 정치적절충을시도한 3黨총무회담은 稅法小委에서 각黨이 제시했던 妥結線을 무시한채 架空的인 숫자를 놓고 30여분간 입씨름만 벌이다가 조정작업을 다시 小委에 일임하는 핑퐁作戰을 전개.

○…그런데 이날 稅法협상의 타결은 民正黨이 法人稅와 소득세등에있어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線에서, 民韓黨은 부분적인 목표線충족을 받아들여 대폭 양보하는 線에서 이뤄진것. 반면 국민당과 의정동우회가 짭짤하게 實利를 얻은셈. 그러나 무엇보다 妥結의 원동력은 더이상 시간끌기가 與野 모두에 無用하다는 판단때문인듯.

소득세법에 있어 당초 3천1백97억원의 삭감목표를 세웠던 民韓黨은 점차 삭감목표를 내리기 시작, 1천5백32억원까지 내려가다가 겨우 2백18억원을 깎는데 그쳤는데 이중 1백23억원은 근로소득공제한도액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국민당이 주장한것.

民韓黨은 또 特消稅부문에서 15억원을 깎았지만 民韓黨개정안대로하면 1천7백10억원을 삭감해야할 처지였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극히 미미한편. 【李以春기자】

◇주장과 고집등으로 맞선 與野가 4일간의 줄다리기와버티기작전끝에 25일하오 稅法案이타결되자 朴泰俊위원장 (中央) 과 稅法小委員들이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짓고있다.

메아리

數字풀이

국민총생산은 이제 기초상식에 드는 말이 되었다. 신문에서도 국민총생산의 영어약자인 GNP를 꼬부랑 글씨 그대로 쓴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국민총생산이란 한나라의 경제규모를 計量하는지표다. 그것은 한나라의 경제수준, 나아가국력을 가늠해 보는 척도가된다. 국민총생산을 비교함으로써 세계각국의 序列을 꽤 정확하게 매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국민총생산이 北韓의 4배에 이르렀다는 통계 (80년기준)은, 그래서 우리에게 뿌듯한 자신감을 안겨준다.

그보다, 국민총생산의 의미는, 각가지 경제지표를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는데서 더 크다. 한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총생산은 국민학교에서 배운 分數의 分母와 같다. 예컨대 정부의 예산규모가 적정한지는 예산총액을 分子로, 국민총생산을 分母로한 分數로 계산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세금총액÷국민총생산으로 판단한다. 이른바 조세부담률이란 것이다. 소득의 분배가 공정한지도 高소득층과 低소득층의 소득총액을 각각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그상당부분이 국민총생산을 分母로 한것들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예산안통과의 法定기일을 겨우 1주일 앞두고, 그 分母를 고쳐잡아야 한다고 해서 야단이다 (25日字 한국일보4면). 작년도 경제성장률을 7.1%로 잠정추계 했으나, 확정추계 결과 6.4%로 집계된 것이다. 작년도 국민총생산가 확정단계에서 7천5백억원쯤 줄어든 때문이다.

이에따라 작년도국민총생산을 기준하여 추계했던 금년도 국민총생산도 줄여잡아야한다. 덩달아 내년도의 국민총생산의 예산규모도 고쳐잡아야할테니, 예산안에 포함된 여러 計數중에서 수정해야할 숫자도 적잖이 나온다.

그한가지 예가 야당이 들고나온 국방예산 2백억원의 삭감주장이다. 국민총생산對比 6%란 국방예산의 分母가 달라졌으니, 계산 또한 달라질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비슷한 논리를 확대하면 稅收추계등에도 論難의 소지가있다.

여기서 국민총생산을 추계하는 기술적인 측면은 거론할 것이 없다. 그것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年度가 다 가기전에 어림잡는 국민총생산의 잠정추계가 확정추계와 다를것도 당연한 짐작이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첫째는 성장률 추정에서 0.7%포인트, 당초 추정한 성장률(7.1%)에 대하여 10%에 이른 誤差가 기술적으로 의당한 범위 안에 드느냐는 것이다.

다음의 의문은 국민총생산의 확정추계가 왜 이제사 나오느냐는데 있다. 예년 같으면 8월쯤에 확정추계가 나와 예산안 논의에 반영되곤 했다. 그러던 것이 하필, 實名制파동으로 예산안 計數에 혼란이 있는 올따라, 이처럼 늦어졌느니 민망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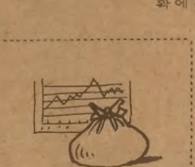
이번 비슷하게, 추계가 잘못되고, 최종집계가 늦었던 前例를 들자면, 「소문난 잔치」로 끝난 금년도의 쌀 생산량 발표가 두드러진다. 생산목표 3천8백만섬을 돌파한다던 생산량이 3천5백만섬에 그친 것이다. 그나마도 최종집계의 발표는 추곡수매가가 결정된 뒤였다. 농민의 처지에서 보면, 생산량이 줄어든 만큼 수매가가 더 올라야 타산이 맞을텐데, 大豊만을 말하며 수매가를 결정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쌀생산량은 4천만섬을 운운하다가 3천5백만섬으로 줄였다. 연2년에 걸쳐 「태풍을 이겼다」「가뭄을 이겼다」던 행정의 大豊노래가 가을바람과 함께 갖아 든 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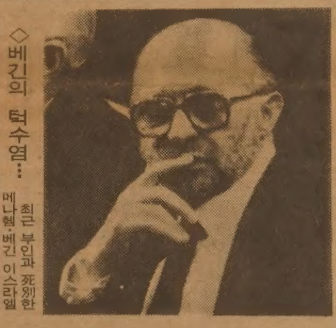
그러니, 농업통계란 「擴大志向」의 추계와 「縮小志向」의 최종집계를 번차 작성되는 것이로구나 싶어진다. 그렇다고 이번 국민총생산 집계가 「감춘 패턴」을 좇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그 숫자를 접하는 당혹감과 의문을 적어 둘뿐이다.

그렇잖아도 요즘은 2주年代운운 하는 숫자풀이가 흔하다. 그 장미빛 전망이 반갑기는 하나, 그해 그해, 몇달앞을 전망하는 숫자가 오락가락한다면, 20년뒤를 내다 본 숫자에 무슨 현실감이 있으며, 숫자보다 훨씬 추상적인 指標는, 그것이 아무리 고매할들,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우리처럼 모든 통계숫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나라에서, 확실히 국민들이 그 숫자에 架空이 들어 있다고 의심할 때의 사태는, 그래서 可恐하다고 해야 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베긴의 턱수염… 최근 부인과 死別한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이 猶太人전통에따라 부인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턱수염을 깎지않은채 24일 크네세트(이스라엘국회)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예루살렘24日UPI=聯合】

海外토픽

美구축함 조이退役 ★월남戰활약…장비낡아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구축함 터너·조이호가 장비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최근 퇴역했다.

터너·조이호는 월남전이 한창 가열되고 있었을때 모두 7차례에 걸쳐 베트남해역에 배치되는 등 그야말로 「월남전 감초」구실을 했는데 이 구축함이 퇴역함에 따라 월남전은 더욱 망각 속으로 사라져가는 느낌이다. 【샌디에이고=UPI】

마르코스딸 密愛中 ★말라카냥宮 가끔빠져나가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의 딸 이메양(27)은 연인인 운동선수 토미·마노톡씨와 밀애를 즐기기 위해 자주 말라카냥궁을 빠져나간다.

한때는 이메양과 마노톡의 사랑에 반대, 이들이 작년12월4일 미국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렸을때 분노를 표시했던 마르코스대통령부부는 이제 이들의 결합을 용인하고있다는 조짐들이 나타나고있다. 【마닐라=AP】

每秒6百번 自轉 ★英學者들 새별 發見

영국의 천문학자들은 최근 은하수의 가장자리에서 매초 6백번이나 자전하는 새로운 별을 발견해 크게 흥분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드번호 4C 21·53으로만 알려졌던 이별은 또 매초6백60회이상 전파를 내고있다고 케임브리지대학의 앤터니·허위시박사가 설명했다. 【케임브리지=로이터】

青年시절 無斷家出 ★브레즈네프、印찾아가려

소련공산당서기장이었던故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청년시절에 인도라는 먼꿈나라를 찾아가기위해 한차례 무단가출을 시도했었다고 전모스크바주재 인도대사 T.N·카울씨가 공개.

유네스코(UN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에 참석중인 카울전대사는 자신이 모스크바로 부임, 신임장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브레즈네프가 이같은 사실을털어놓았다고 밝히면서 무단가출을시도했던 브레즈네프는 그러나 부친에게 붙잡혀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파리=PTI】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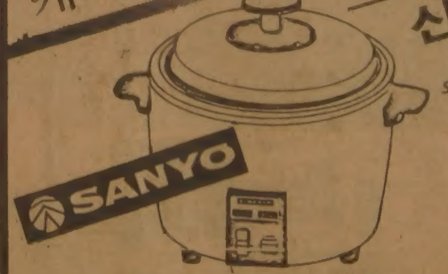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켓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켓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땅에 떨어진 日警察 위신

汚職사건으로 경찰學校長 자살
절도·女高生희롱등 잇단不祥事
「女子·술·돈」3禁忌지시

◇일본의「전자게임센터」에서 도박이 성행하고있다. 하루에 수억엔을 날려 敗家亡身하는 사람도 있다.

관기가 확립되어 범죄검거율이 높기로 이름난 일본警察이 잇다른 범죄사고로 그 위신이 땅에 떨어져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있다.

나고야(名古屋)에서는 파출소순경에게서 권총을 빼앗은 강도가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며 살인강도를 벌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으며、오오사까(大阪)에서는현지 경찰이「도박전자게임」단속 정보를 흘려보낸 댓가로 업자로부터 매달 수백만엔을 뇌물로 받은 오직사건이 일어났다.

「도박전자게임」은 전자게임기계로「포커」놀이를 할수 있게 만든것으로 하루 수억엔까지 날리는등 큰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전자도박장의 설치가 쉽고、또 승부가 빨라서 전국에서 5만대가설치되어 은밀히 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시청은 작년부터 전자도박장의 단속에 나섰으나、그때마다 단속해야할 담당경찰관이 전자도박장의 업자에게 사전에 단속시일을알려줘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없게된일이 많았다.

최근에는 빠찡꼬、터키湯、전자게임센터등 유흥장의 풍속사범을다루는오오사까(大阪)府警의 소네자끼(曾根崎)경찰서방범과 기요다(清田[illegible])순사부장이、같은동료였던 노나까(野仲)前순사부장에게 도박장의 단속정보를 흘려보냈으며、노나까는 이를 도박업자에게 전화로 즉각 알리는 오직사건이 적발됐다.

노나까(野仲)는 이댓가로 업자로부터 한달에 수백만엔을 거두어들여 자기妻가 경영하는 클럽에서 방범과의 현직경찰관을 접대하며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당시오오사까(大阪)府警본부장이었던 경찰대학의 스기하라(杉原正·51)교장은「일본경찰에 똥칠을 했다。면목이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12일 목을 매 자살, 세상을 깜짝 놀라게했다.

東大를나와 30년을 근속한 杉原교장이 단순히 책임감에서 자살한것인가、아니면 이사건과 관련이 있는가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간부가 슈퍼마키트에서 물건을 훔치고、순찰경관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고생을 희롱한 사건이 터지는가하면 교통경찰이 술을 먹고 자동차를 몰고 사고를 내는등 잇단 불상사에 일본경찰청은 골머리를 앓고있다.

궁리끝에 일본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찰수첩에「모름지기 경찰관은 여자와 술과 돈을 멀리할것」을 기재、매일아침 반성토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東京=[illegible]특파원】

特派員 노트

東南亞 赤化노리는 共産세력
麻藥武器로「조용한戰爭」전개

공산세력은 세계의 非공산세계 특히 東南亞지역의 일부국가들을 상대로 마약을 무기로『조용한 전쟁』을 벌이고있다는 의혹이 이지역에서 고개를 들고있다.

마약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념을 거부하는사회를 전복시키기기 위한 수단의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같다.

붉은무리들은 버마를 점령한뒤 마약거래에 손을댐으로써 지난19세기중국인들을 약화시키기위해 그곳에 아편을보급한 영국의 수법을 재현하고있는것으로 많은사람들은 믿고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는 거꾸로 마약으로 동남아의 비공산국들을위협하고있다. 일부관측통들은 마약전쟁의 목적이 해당국가의 기성또는 미래세대를『살아있는死者』로 전락시키는데있다고주장하고있다.

자유사회가 마약으로 구멍이 뚫리면 별저항없이 공산주의가 잠식해 들어갈수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마약밀매로 이름난 버마 타이와 라오스의 3국접경인 이른바『황금의 3각지대』가 주로 공산세력 또는 親공산분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점에 현실적근거를 두고있다.

그곳의 양귀비경작 원주민으로부터 마약을 시장에 최종적으로 내다파는 공급조직에 이르기까지 마약거래의 전과정에걸쳐 공산세력이깊숙이 관여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콸라룸푸르=베로라미】

本據地잃은 PLO 전사들
對유태인 테러行爲도 주춤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으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전사들이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하자 이스라엘국내에서 이스라엘인에 자행되곤했던 테러활동이 현저히줄어들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면서 레바논영내에 흩어져있던 테러리스트양성소를 박살냈기 때문이다.

레바논에 있는 테러리스트양성소는 내년 수백명의 국제테러리스트를 훈련시켜왔던 이들에게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하는가하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주기도하고 경우에따라선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유럽·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등에 있는 40여개의 테러단체가 레바논에 있는 테러리스트양성소와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赤軍派의 경우만보아도 赤軍派테러리스트들이 일본보다는 오히려 레바논에 더많이 있는것으로 알려질 정도이다.

이스라엘국내에서의 테러활동은 줄어든 반면에 해외에 거주하는 유태인을 표적으로하는 테러는 한층 더 증가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던 6월~10월사이에 해외유태인에 대한 테러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8건에서 28건으로 껑충 뛰었다.

해외에서의 유태인테러의 주범은 예상과는 달리 PLO가 아니다.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계속하자 세계전역에서 다시 고개를든 反유태주의가 주범이다.

오히려 PLO의 해외유태인테러는 대폭 줄어들었다. PLO가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한 이후로 그조직이 사실상 와해되어 버렸기때문인것같다.

PLO는 작년 6월~10월사이에 12건에 달하는 유태인테러를 저질렀지만 올해 같은기간에는 8건에 그쳤다.

PLO의 이스라엘인에 대한 테러도 대폭줄어 들었다. 작년에는 1백31건이었으나 올해는 30건에불과했다.

PLO전사들은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한이래 아랍형제국가와 소련의 소극적인지원태도를 보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것。그리고 레바논에남겨놓고온 가족들의 안부때문에도과격한 테러를 주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PLO전사들이 심리적허탈감에서 깨어나고 충격을 극복하게 되면 더강한 복수심에불타게될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PLO주도권을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에서 마르크스성향을 지닌 과격파가 득세하고있어 이런 추측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外紙에서】

世界의 社会面

2천年代의 美國은「老人문제」가장 고민

美 인구統計局 분석

出産率줄고 平均수명 늘어

『서기 2천년의미국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젊은 층이 줄고 노인층은 많아져 노인문제와 이들의 의료복지문제가 큰과제가 될것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골치거리였던 지속적인 실업과 범죄증가율도 줄어드는반면 산업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은 크게향상될 전망이다』

미국인구통계국은 현재의 2억3천2백만명의 미국인구가 1년에 1%미만의낮은 인구증가율로 서기 2천년에는 2억6천8백만명에 이르고 2천50년의 3억9백만명을 절정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10代인구는 81년의2천7백60만명에서 1995년에는 2천4백40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살이상의인구는 2천6백30만명에서 3천4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것。

분석가들은 이같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연장에 기인한 것으로 현재의 미국남자평균수명인 70·7살은 2천5년에는 73·3살이 되고 여자평균수명은 78·3살에서 81·3살로 보고있다.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9·7%로 1950년대의 18·7%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며 1990년대에는 7·3%에 머무를것으로 보고있다.

인구분석가들은 금세기후반에 여자1명이 평균1·9명의 출산율을 갖게돼 1년에 평균45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민문제만 아니면 미국에서의 인구문제는 해결될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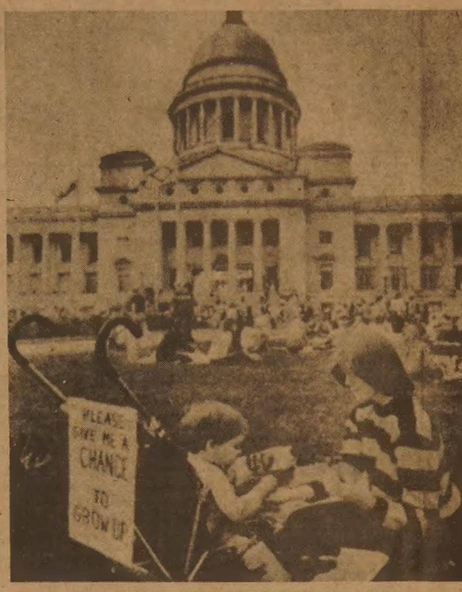
백인보다도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흑인들은 2천년에 전인구의 13·4%를 차지해 1980년의 11·8%보다는 커다란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 백인들은 전인구의 85·9%에서83·1%로 낮아질 전망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또한 10代청소년의 감소추세가 2천년대의 범죄와 실업률을 떨어뜨릴것으로 보고 있다。놀고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노동력의 감소때문에 좋은 재능을 고용하려는 기업인들은 초임을높여야 할것이라고 전문가들은말했다。

전문가들가운데는기업들이 줄어가는데 필요한 새인력의 부족이 기업계에서 해외인력의 도입을 필요로하게 만들고 이것이 이민제한을 완화시키게 될것이라고 내다보기도한다。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의 선택이라는 청사진을 얘기하기에 앞서 이들을 필요로하는군부에는 우울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

즉 35살에서64살까지의 중년층은 1980년에 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에서 2천년에는 39%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



◇2천년대의 미국은 낮은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증가、「노인문제」가 커다란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10代적어 犯罪·失業率 감소
衣類·飮料·住宅등 일부 企業 30~40代겨냥 사업구상 한창

이같은 추세에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젊은이대상의 레코드나 영화、「소프트·드링크」사업으로 뻗어나가야 할것으로 보인다。

『멋진 사업이란 30살에서 40살까지의 연령층을 겨냥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란』고 벌써부터 야단들이다。

청바지회사인 레비스트라우스社는 이같은 연령층의시장확보를 이미 겨냥했고 청량음료회사들은 당분과 카페인이없는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가지 경향은 30、40代들의 독신자를위한 소형주택건설이 활발할 것이다』라고 메이타 리소스회사의 수석부사장인 로버트·고는말하고있다。

이밖에도 건강하고 재력이있는 노인들을위한 레저관광사업이 활발해질수밖에 없다。

서기 2천년에는 85살이상의 노인숫자가지금의 2백40만명에서 5백10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보여 이들에대한 노인병 전문가와 노인병원、양로원등 복지시설에대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도록 압력을받게 될것이다。

이같은 양상으로 서기2천년의 미국은 오늘날의미국과 판이한 나라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전망이다。【外紙에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76〉

부드러운 겨울②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오빠、제가 언제 시치밀 뗐다고 그러세요』

『말로 모른다고해야만 시치길뗀는거냐? 넌 그런 부탁을 한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잖니? 잊어버린김에 아주 잊어버리렴。중동가는일자리라면 머리를 싸매고 들이덤비는 세상인데 이왕 따놓은 일 그 사람 아니면 보낼사람 없겠냐? 돈 받고 팔려도 아마 뒤 돈 먼저 받을지 모를 걸』

『오빠』

『왜 내가 말 잘못 했냐? 말이야 바른대로 말이지 내가 지금 사회적 지위로 봐서 중동 노무자 자리 청탁이나 하고다니게 생겼냐? 누이동생의 부탁이길래 내키지않는 일에 나서서 겨우 성사를 시켜놓으니까 언제 그랬더냐싶게 시들하게 나오니 내 하도 어처구니가 없기에 하는 소리다』

『고마와요 오빠、수고하셨어요』

『고맙다는 소리가 왜 그러냐?』

『그럼、어떡해요。곧 그쪽에 연락할게요』

『연락만 하면 다가아냐』

『그럼요?』

『보아하니 네가 그럴만한 신세 진 사이도 아닌것 같고、괜히 일시적인 동정심으로 그런 부탁 받았나본데 교제비라도 받아내야한다。막벌이꾼들한텐 지금 중동이라면 노다지판이야。서로 머리를 싸매고 덤벼。맨입으로 되는 노릇이 아냐?』

『오빠!』

『왜 아까부터 오빠 오빠하고 불러싸냥? 이 오라비 속 넘어가지않는다』

『오빠 제가 부탁한 그 사람이 누군줄 아세요?』

『글쎄다。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냐하면…』

『누구든지간에 밟을 건 밟아야돼』

『아、알았어요。전화 끊을게요』

『얘 좀 봐。해물입 서류목록을 적어야지。가만있자、사진만해도 증명사진따로、여권 사진 따로、몇장이더라? 나 헷갈려。더럽지 어려워。종이하고 볼펜 준비 됐냐?』

『네、부르세요』

『잠깐만해도 내가 편한 짓 한것같다。네 태도가 왜 그렇게 시들하냐?』

『아、오빠、제발 오빠가 보실수만 있다면 숨이라도 추어보이련만』

수지가 비명을 지르자 수철이는 장황하게 갖추어야할 서류를 일러주고나서 전화를 끊었다。

수지가 수철이 사무실까지 달려가서 어떤끔찍한 사람하나를 중동으로 보낼 길을 찾아와달라고 부탁한 건 바로 오목이가 토종닭을 가져온 다음날이었다。그 후 며칠 안됐건만 수지는 왠지 그 기억이 몽롱했다。

수철이 말에 의하면 노골까지 굴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을까?왜 간곡하게 부탁한 것 같기도하고、지나가다 들른 척 잡담끝에 한마디한것 같기도 했다。그렇지만 지나가다 한마디 한 말을 귀담아 듣고 남에게 다시 청탁을해서 성사시켜줄 수철이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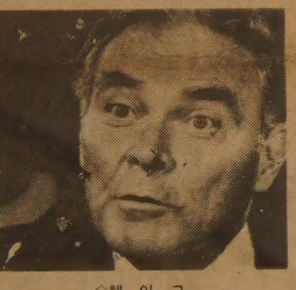
수철이한테 그 일을 부탁하고 와서 지금까지 몸살인지 꾀병인지 시름시름 앓으면서 울곤 생각한 것은 오목이하고도 연락하고도 다시는 상종을 하지말아야지 하는 거였다。

다시는 다시는 상종을 하지말아야지。그러기 위해선 또 한번 오목이를 모른다할수밖에 없으리라。그건 한놀 무서운 일이지만 그럴수밖에 없어。제발 오목이와의 악연(惡緣)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수지는 줄곧 그 생각만 했다。수지는 몸살을 앓는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앓은거였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情報源은「헤이그」

닉슨의 前법률고문 존·딘著書서 주장


◇헤 이 그

◇존·딘

"그는 白堊館비밀회의때마다 參席 盜聽 녹음테이프接近 인물중하나"

닉슨 前미국대통령의 사임을 몰고왔던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결정적인 정보원이었던「목구멍깊숙이」가 알렉산더·헤이그 前미국무장관 이었다고 닉슨의 법률고문이었던 존·딘씨가 그의 최근저서「잃어버린영광」에서 주장하고 나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11월중순 발간예정인 존·딘씨의「잃어버린 영광」을 이용、최신호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목구멍 깊숙이」는 원래는 도색영화제목이었으나 워터게이트스캔들을 특종보도한 봅·우드워드에게、닉슨이 워터게이트스캔들의 전모가 담긴 증거물인 도청테이프의 녹음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결정적제보를 해준 익명의 소스를 가리키는 암호명칭이다。

현재 워싱턴포스트紙 수도권부장으로 있는 봅·우드워드는「목구멍깊숙이」가 누군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존·딘은 워터게이트스캔들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4개월만에 석방된바있다。

존·딘이「목구멍깊숙이」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75년에는 워터게이트담당검사인 얼·J·실버토가、76년에는 닉슨의 연설문작성자였던 데이비드·거겐이 각각「목구멍깊숙이」라고 주장한바있다。

그러나 존·딘의 주장은 주장으로만 그쳤을뿐 아직까지도「목구멍깊숙이」의 정체는 오리무중이다。

존·딘은 헤이그가「목구멍깊숙이」라는 이유로 당시대통령 수석보좌관으로 백악관 비밀회의에 거의 대부분 참석해 스캔들의 전모를 소상히 알고있었으며 도청녹음테이프에 접근할수있었던 몇안되는 인물중 하나였다는 점을 들고있다。

하지만 존·딘이 말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情況증거일뿐 구체적증거는 아니다。

타임誌도 존·딘의 주장에 의문을표시하고있다。

얼굴이 널리알려져 척보면 알수있는 헤이그가 새벽2시에 워싱턴의 차고주위를 서성거리며 눈에띄지않고 봅·우드워드를 만날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타임誌는 자사기자들을 동원해 존·딘의 주장을 면밀하게 조사해왔으나 그의주장을 뒷받침해줄 어떤 증거도 찾지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봅·우드워드는 존·딘의 주장을 일소에 붙이면서『존·딘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게 없다』고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헤이그도 존·딘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엉터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자택에서 존·딘의 주장에 대해 논평을 요구하는 美CBS방송기자의 요청에대해『존·딘의 주장은 책을 팔아먹으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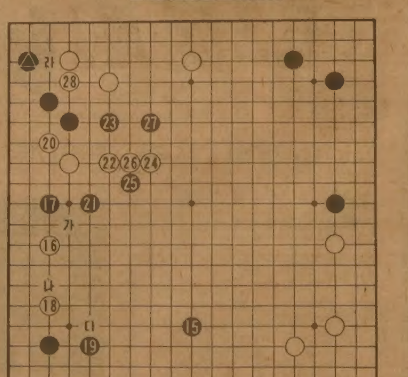
헤이그는 존·딘이 자신과 봅·우드워드가 워싱턴의 한차고에서 만났다고 주장한 시기에 자신은 육군참모차장 직을 수행하느라 백악관일에는 거의 손댈수 없었다고 말했다。【뉴욕=[illegible]】

한국일보
도매도광고 접수합니다
533-2361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2譜 15~28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1勝〉
黑(4段) 李 相 澈〈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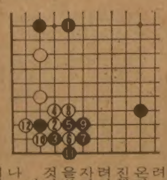


姜4단은 첫판을 徐能旭6단에 낙승하고 李4단은 河燦錫7단에 역전승하여 각기 고무적인 스타트를 끊었다。따라서 이바둑은 피차 꼭이겨야 한판。2승무패와 1승1패는 전체승률에 커다란 격차가 생기기 때문이다。특히 작년도에 도전권을 딸듯하다가 끝무렵에 좌절한 姜4단으로서는 이번期에 기필코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결의가 대단해보인다。

黑15와 白16을 전문가는 맞보기라고한다。다만15로는「가」에 협공하는 수도있어 취사선택이 어려운곳인데 李4단은 결국 평온한쪽을 취했다。그러나다음순간黑17。이수로「나」에 벌려 계속 온건하게 진행시키려다가 갑자기계획을변경한 것이다。

예상되는 大接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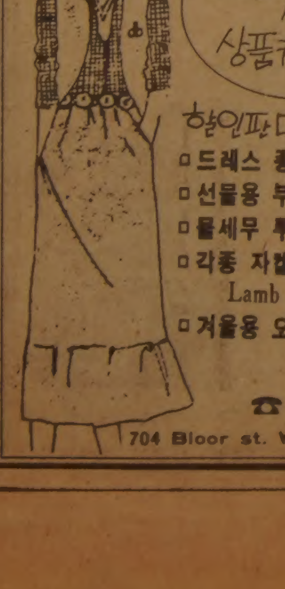
어쨌거나 黑17이면 급전은 불가피하여 이곳서부터 뜻하지 않은접전이 전국면에 확산되어간다。



黑19는「다」의곳이 보통이라는 중론。단지 이수로 먼저 21에뛰면 참고도처럼 白2이하12까지 黑이 불만스런 결과가된다。

白20이 좌상귀의 정석에서 급소였다。黑은 20을 피하려면 앞서둔▲표로「라」에 붙이는 형이 타당했다。그보다 黑23이하 白28까지는 어땠을까。다음보에서재론해보자。【一凡】

숙녀복 전당
Mirage Boutique
(구 코스모스)



크리스마스 선물용 상품권 판매

할인판매
□드레스 종류
□선물용 부라우스
□울세무 투피스(size 6,8,10)
□각종 자켓(Pig skin, Lamb skin, Rabbit Fur)
□겨울용 오바 코트

대표 최은경
☎: 530—1870
704 Bloor st. W(아리랑하우스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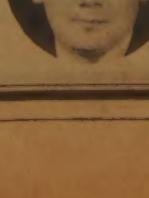
S.T.S Motors
자랑스런 차
각종 VOLVO
(스웨덴)

▪우리는 VOLVO 차를 취급하는 가장 뛰어난 딜러입니다.
▪자신을 갖고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각종 차, 책건등

판매·LEASING·써비스·부속파트·타이어·페인트
S.T.S.MOTORS
전화: 751-7664 (EAST OF WARDEN)
2116 LAWRENCE AVE. E.

꽃도매상

▲모든 채소 종류
▲각종과일
▲화분
▲Cut Flower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대표 : 곽덕열
전화 : 465-8167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 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어×영 남쪽)

不動産 실지거래價額 불분명할때

"換價의한 讓渡稅는 무효"

大法院판결 "舊소득세법시행령 母法근거 없다"

새所得稅法에도 위임規定 없어

投機규제 관련 注目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때 양도차익(差益)을 계산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산값이나 판값중 어느하나를 알수없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환산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고있는데 이는 무효이며 그이유는 근거를 규정한 구소득세법시행령자체가 모법인 구소득세법에 근거가 없기때문』이라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이같은 판례는 문제된사건이 구소득세법및 시행령이 시행되던때 일어난것이기때문에 구시행령만을 무효로 판단한것이지만 새소득세법에도 위임규정이없이 그 시행령에 「환가규정」이 그대로 들어있어 국가가 패소할여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아파트등 부동산의 프리미엄 과세와 직결돼 크게 주목된다.

또한 이판례대로한다면 정부가 일부 아파트투기지역에서 환가방법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던 당초방침은 크게 타격을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李海昌대법원판사)는 25일 경남鎭海市昌善洞7 林靑淳씨등 2명이 東馬山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모법인 구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실지양도대가를 의미한다는것이 분명한데도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백70조제1항이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것은 모법에 근거가없는 위법의 시행령이다』고 판시, 원고 林씨의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大邱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 林씨등은 지난73년9월17일 경남昌寧郡 釜谷面에 있는 논3백75평을 사들였다가 이땅이 대지로 환지된 후인 80년10월23일 윤모씨에게 1억1천만원에 팔았다.

林씨등은 그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확실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 분실로 분명치않자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싯가』에 의해 산출한 양도소득세 9백12만여원을 자진납부했다.

그러나 東馬山세무서는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할수있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환산해내 양도차액을 계산한후 양도소득세로 1천9백90만원을부과하자 林씨등이 소송을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때는 양도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고만 돼있다.

또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백70조1항및 3항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실제거래가액과 상이할때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단 이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수없을때는 확인된 어느하나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가계산한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른 시행규칙은 『환가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 지가상승률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때는 기준싯가에 의한다고만 돼있는데도 그시행령에서는 『환가규정』을 두어 환가계산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토록한것은 위법이란 것이 이번 대법원판례의 취지다.

한편 80년12월13일에 개정된 새소득세법 제23조제4항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고만 돼있을뿐 환가에대한 위임내용이 전혀없다.

그런데도 새소득세법시행령 제1백70조 제4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투기억제지역에서의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돼있으며 제1항은 『제4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어느하나를 조사할수 없을때는 알수있는 가액을 기준으로 환가계산한다』고 여전히 환가규정을 두고있다.

해설

"법률위임없는 명령·규칙등 행정立法 부당"

당국 自意의한 徵稅에서 납세자 보호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번 판례의 취지는 법규정에도 없는 세무당국 자의에의한 세금부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그취지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주민의 대표기관인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하고 그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유권해석은 허용되지않음을 의미한다』면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이나 부가징수절차를 규정하는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히고있다.

문제는 80년12월13일 개정된 새 소득세법및 시행령이다.

새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만 기준싯가로 한다』고 돼 있다. 기준싯가로 할때를정한 새시행령 제1백70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때,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할수 없을 때』로 돼있다.

그러나 새시행령 제1백70조 제4항은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과의 거래 ▲투기억제 지역에서의 거래는 『예외로선』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며 이때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모를때는 아는 쪽을 기준으로 환가 계산할수 있도록 정하고있다.

예를들어 법인 아파트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했을 경우는 당사자가 신고를 안했다해도 기준싯가가 아닌 실질거래가액을 조사하게된다.

이때 취득가(분양가)는 확실하나 양도가액을 알수없기 때문에 취득가를 기준으로 환가계산하는 「실질조사」를 하는게 세무당국의 지금까지의 방침이고 새시행령에도 그렇게 규정돼있는것.

그러나 이같은 새시행령도 새소득세법에 근거가 없는것이기때문에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세무당국으로서는 설령 탈세방지와 투기억제를 위한조치였다해도 모법에 근거없는 시행령규정은 삭제하거나 모법자체를 개정,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취해야할것같다.

현재 투기억제지역고시는 폐지(81년7월)돼 환가 계산할 경우는 줄어들었다해도 법인(아파트 분양업체)과의 거래에 따른 환가계산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는형편이기 때문이다.

법개정이 없는한 소송으로 번져 국가패소가 확정될경우 아파트투기자에 대한 「실지조사(환가계산)」는 할수 없게된다.

이렇게되면 결국 기준싯가에 의해서만 양도차익을 계산할수밖에 없어 「프리미엄」에대한 과세란 불가능해질수도 있다. 【崔奎植기자】

◇고드름 주렁 4일동안 계속된 추위로 기둥같은 고드름이 얼어 주렁 주렁 매달렸다. 【25일 南山관광도로변에서 金龍逵기자찍음】

小雪추위 週末께 풀려

나흘째 맹위를 떨치고있는 小雪한파는 주말인 27일에가서야 누그러져 예년기온을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小雪인 23일부터 추위지기 시작한 날씨는 25일 아침 서울·水原지방이 영하 7·1도, 春川이 영하 9·7도까지 떨어지는등 전국이 예년보다 7~10도나 낮은 기온분포를 보였는데 중앙기상대는 25일 한우를 고비로 한파는 다소 누그러지겠으나 26일 서울지방의 최저기온 영하3도등 전국의 최저기온이 영하6도에서 영상3도를 기록, 여전히 濟州와 경남일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이 영하권에 들것이라고 예보했다.

중앙기상대는 25일 북서쪽에서 확장된 한랭한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26일부터 날씨가 다소 누그러져 주말인 27일께야 예년기온을 되찾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또 오는 27·28일께 중부이북지방에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내달 2일께 또한차례 비·눈이 오고 기온은 예년과 같거나 다소 낮은 분포를 보일것으로 내다봤다.

25일 아침 지역별 최저기온은 다음과 같다.

▲서울=영하7·1▲仁川=영하6·2▲大關嶺=영하12·5 ▲大田=영하6·5 ▲全州=영하4·8▲부산=영하1·8▲大邱=영하3·6

파도에 휩쓸려 선원 3명실종

【束草】24일밤10시10분께 동해鬱陵島동쪽 2백마일 대화퇴어장에서 표박중이던 東海市소속 16삼영호(99·65톤·선장이복기)가 파도에휩쓸려 타고있던어부 강인봉씨(53·東海市墨湖洞15)도진녹씨(47·東海市發翰洞14의5) 이동규씨(62·東海市墨湖洞18)등3명이 실종됐다.【聯】

「全國쥐잡기」 차질

弘報부족…농민들 적정함량 못지켜

우리나라인구의 2·5배에 달하는 쥐를잡기위해 오는27일을 「쥐잡기날」로 정하고 전국 4천여 자연부락에 쥐약을 배부했으나 홍보부족에다 일부농가에서 함량비율을 맞추지못해 실효를 거두지못할것같다.

25일 농수산부에의하면 올해 5억2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쥐약을 전국농가에 배부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지시된대로 배합을하지 않아 냄새가 나기때문에 쥐가 먹지않는사례가 생기고있고 물약이 효과적이나 어느 특정약품을 권장할수없어 각 시도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구입하는대로 묵인, 차질을빚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배급쥐약을 외면한채 다시약국에서 효능 좋은 쥐약을 사다쓰고있는 실정이다.

경북 龜尾지방의경우 지난 4월에 지급된것과 같은쥐약을 보급받았는데 이쥐약은쥐가 잘먹지 않는 약이라면서 주민들이 불평하고있다.

죽은 송아지고기에 주민30여명 食中毒

【尙州】25일상오10시께 경북尙州郡化西面上谷里 김병기씨(36)일가족3명이 죽은 송아지고기를 먹은후 식중독증세를일으켜 성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이며 같은마을 주민30여명도 같은 증세로 앓고 있다.

이마을 김병우씨(34)에 의하면 지난10일하오8시께 같은마을의 안동근씨(41)가 기르던 생후 4개월짜리 암송아지가 원인모르게 죽어 이마을 10여가구주민들이 송아지를 잡아 나누어 먹었는데 구토와 고열등 식중독증세를 일으켰다는것이다.【聯】

言論人 白桄씨

전대한일보전무이사를지낸 白桄씨(사진)가 24일하오10시30분 숙환으로 한양대부속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64세. 유족으로는 미망인 李珮熙여사와 1남3녀가 있다. 발인은 27일상오10시同병원영안실. 연락처293-2111.

라디오로 高入영어 出題

光州·木浦서 첫실시

말하기·듣기能力 평가

내달16일 選拔시험때 20문제중 10문제

【光州】고입선발고사 사상처음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해 영어시험문제를 출제, 영어에 대한 수험생들의 듣고 말하기능력을 평가하기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위는 오는 12월16일 실시되는 83학년도 光州·木浦지역 고입선발고사의 영어시험문제 20개중 절반인10개문제를 라디오방송을 통해 출제키로 25일 결정했다.

도교위의 이같은조치는 우리나라 고교입시사상 처음있는 일로 영어교육을 종래의 문법·독해력중심에서 탈피, 말하기·듣기·읽기·쓰기등 4가지 기능을 고루갖추게하는 산영어교육을 지향키위한것.

이에따라 83학년도 光州·木浦지역 고입선발고사 응시자 4만5천6백40명은 오는 12월16일 낮12시20분부터 30분간 라디오방송을통해 출제되는 영어시험을치르게된다.

도교위는 이번영어시험을 위해 각고사장에 대형라디오 2개씩을 마련키로했으며 청력이 약한 학생들에게는 소형 라디오의 지참을 허용키로했다.

이번 영어시험은 듣기 말하기등 회화문제를 중심으로 객관식문제로 출제되며 모두 교과서 내용중에서 나온다는것.

도교위는 지난80년부터 회화를 중심으로한 영어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카세트테이프를 제작, 도내 2백96개 중학교와 91개 인문고교에 보급하는 한편 매년 3차례씩 학교자체적으로 녹음기능을 이용, 듣고 말하는 내용의 영어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며 문교부에서도 지난 9일과 11일 전국의 중2, 고2학년생을 대상으로 KBS방송을통해 듣기테스트를 실시하기도했다.

도교위의 한관계자는 이번 영어시험방법의 개선에 대해 『어학과목에있어 말하기 듣기능력의 신장이 중요한것은 누구나 알고있지만 입시등 실제 운영면에서는 그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 지금까지 미뤄왔으나 이번 응시자들의 경우 지난 80년부터 지속적으로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을 받아왔고 이에대한 성과도 큰것으로 분석돼 이같은 방법을 도입하게된것』이라고 말했다.【聯】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소재不明 피의자 무더기 궐석재판

【大邱】大邱지방법원형사1심재판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이후 10월말현재까지 소재불명인 형사피고인 2백64명에 대한 무더기 궐석재판을 열고 벌금형등을 선고했다.

大邱지법의 이같은 궐석재판은 지난해1월29일부터 시행된 형사제1심 공판절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소재를 확인할수 없을때는 대법원의 규칙에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수있다』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른것이다.【聯】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濟州에날아온 세계적인 희귀조 검은따오기。

濟州에「검은따오기」

우리나라 처음찾은 세계적稀貴鳥

【濟州】세계적인 희귀조「검은 따오기」한마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20일께부터 北濟州郡舊左邑下道里 양어장에 날아와 머물고 있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새는 이곳주민 金원지씨(40·下道里)가 처음 발견, 25일상오10시 조류학자 朴行信교수(47·濟州大)와 함께 현지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처음발견된 「검은 따오기」로 밝혀진 것.

이새는 몸통길이 40cm, 부리길이 15cm, 날개 35cm, 꼬리 13cm, 다리 10cm였으며 머리부분과 부리는검고 몸통깃은 연한회색을 띠고있었다.

朴교수는 『검은 따오기」의 분포지는 印度·인도지나반도·中國대륙 남부지역으로 기록돼 있는데 日本전역에 날아왔던 기록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처음 찾아온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따오기인 흰따오기는 1966년 서부전선에서 목격한데이어 74년가을 미국인 아치볼드박사가 판문점에서 발견한적이 있으며 68년 5월30일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됐다.

조류학자들은 검은 따오기의 사진이 현지 촬영됨으로써 이새의 한국도래기록이 추가돼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더 늘게 됐다며 이번 발견을 조류학계의 큰수확으로 평가하고 있다.

감시원 2명配置

한편제주도는 25일 세계적 희귀조인 검은따오기가 나타난 北濟州郡 舊左邑下道里양어장에 감시원 2명을 파견, 이새의 이동상황을 살피는한편 사냥꾼과 주민들의 접근을 막아 보호하도록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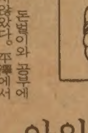
「진짜 성칠이」

라이온스협회 청소년위원장 柳永玉씨

「올챙이 시절 안잊은 개구리」에 大賞

「걸 늙었다」는 말이 있다. 나이에 걸맞지않게 늙어 보이거나 어른스러운것을 할때 이말이 흔히 사용된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16(한국) A지구 청소년위원회위원장 柳永玉씨(35·사진)는 말하자면 걸늙은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나이에 걸맞지않게 불우청소년을 위한 봉사와 선도를 원숙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동료들이 붙여준 것이다.

柳씨는 배고팠던 어린시절을 잊지못해 불우청소년을 돕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고향은 경남 咸陽. 6·25동란후 경기도 平澤에서 미군들의 구두를 닦아 배고픔을 면했고 조금커서는 기지촌과 빈민가의 깡통과 넝마를 모으는 손수레 고물상을 했다.



배를 곯면서도 돈벌이와 공부에는 남에게 뒤지지않았다. 平澤에서 상고야간부를 마치고 상경했다. 서울에 와서도 방송통신대를 거쳐 S大경영대학원의 문을 두드렸고 한국기업경영연구원을 차려 자립에 성공했다.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설에 나오는 성칠이 같은 소년이었다.

자립을 하고나니 고생하던 어린시절이 생각났다. 79년 자신이 만들어 회장이된 서울海東라이온스를 통해 이념은 어렵게 자란 어린시절을 더욱 잊을수 없게 해주었다.

「지역사회에 봉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녕과 인류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모토로 하는것이 라이오니즘이다」는 취지는 자신의 인생관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선 제2의 고향인 平澤 聖智중학교의 명예교장으로 학교를 후원하고 충남新陽中·仁川성림재활원·한국구화학교등을 찾아 불우하고 가난한 청소년의 벗이 됐다.

『얼마전 서울城北洞에있는 저능아교육기관인 명수학교를 찾아갔었는데 저능아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읍니다. 두아이의 棋力이 3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랐읍니다. 저능아라도 우리사회가 잘이끌어주면 잠자는 재능을 깨우쳐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최근 이 「걸늙은 젊은이」에게 라이온스맨의 최고의 영예인 무궁화獅子대상을 안겨주었다. 「개구리 올챙이적 일을 잊지않는다」는 요즘 사회에서 그의 「걸 늙은 행위」를 높이 평가한 賞이다.

요즘 만졌다하면 고급차나 굴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어깨짓을 하는 배금주의자 투성이 세상에서 柳씨같은 사람도 더러있다는 것은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宋大洙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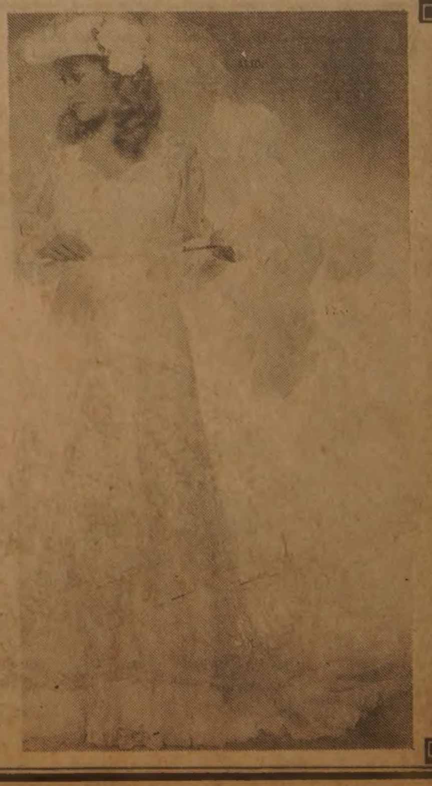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뉴델리 하늘에 連日 태극기

탁구·水泳·사이클서 기대이상 善戰

탁구男子복식(金浣 金琦澤) 決勝에

예상뒤엎고 中共꺾어 日과 金겨뤄

제9회 아시안게임 7일째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중반에 접어든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선수단은 기대이상으로 선전、탁구와 수영、사이클등서 메달권에 육박、쾌조의 진군를 보이고 있다。25일 탁구남자복식준결승전에서 한국의 金浣·金琦澤조는 예상을 뒤엎고 최강팀 중공의 謝賽克·郭躍華조를 3—2로 격파하고 대망의 결승에올랐다。한국의 金조는 일본의 오노·아베조와 金메달을 겨룬다。이날 일본조는 중공의 陳新煥·후이준조를 3—2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梁英子·尹璟美(개인단식) 銅 둘추가

핸드볼 男子 決選토너 진출

탁구 여자개인 단식 준결승에 올랐던 梁英子 尹璟美는 중공의 童玲과 曹燕華에 모두 석패、3위에 그쳐 2개의 銅메달을 따냈다。

사이클의 金柱錫이 4천m 개인추발 결승에 오른데이어 수영의 千仁泰가 남자평영2백m、李始恩이 여자자유형 8백m결선에 진출했으며 육상의 田京美도 여자4백m허들예선을 통과、메달을 노리게 되었다。

아시안게임에 처음 채택된 핸드볼경기에서 한국남자팀은 예선B조 2차전에서 姜泰求가 혼자 7골을 올리며 바레인을 34—24로 대파、2승을올려 공동선두 중공과함께 결승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었다。한국은 중공과 B조수위결정전을 남기고있으나 승리가예상된다。한국은 금년 3월 쿠웨이트 초청대회서중공에 역전승리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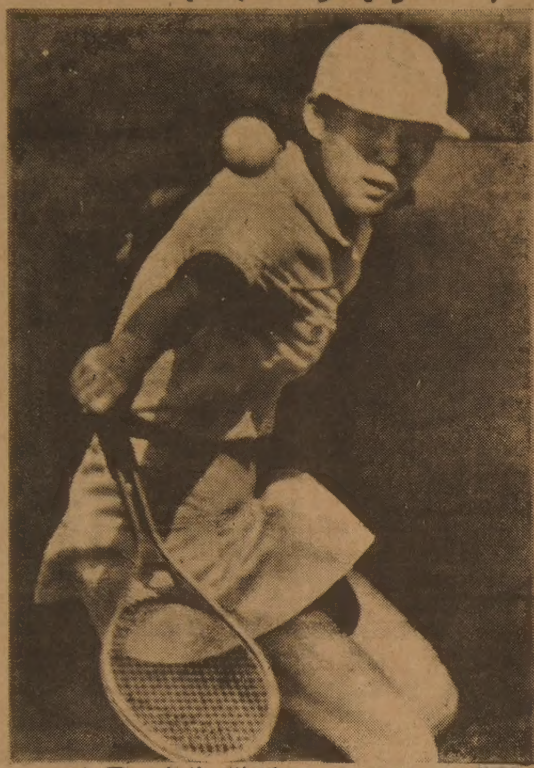
여자농구팀도 인도를 1백27—56으로 누르고 2승을 기록했다。한국은 28일 북한과 12월2일 중공과 대결한다。

여자탁구 尹璟美·尹吉重조로 혼합복식에서 북한의 홍순철·이영숙조를 3—0으로 제압、결승에 올라 銀메달을 확보했다。

수영의 李始恩은 이날 여자자유형8백m결승에서 9분20초92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혼자서 3번째 銅메달을 획득했다。

중공은 탁구개인전이 진행중인 현재 曹燕華·童玲 戴莉莉등의 활약으로 여자 단·복식을 석권、金·銀 2개씩을 추가했으며 여자다이빙에 어 남자하이다이빙서도우승、총 24개의 金메달로 독주하고있다。

일본은 24일 하오 여자계영4백m서 金1개를얻어 金메달 18개로 선두 중공을 숨가쁘게좇고있다。



◇金을 따낸 백핸드 스트로크 한국의 金壽玉선수가 24일 아시안게임 6일째 테니스여자단체결승전에서 中共의유리쿼아에게 날카로운 백핸드 스트로크공격을 하고있다。【뉴델리24日 AP聯】

사이클(4천m 개인추발) 金柱錫 銀머물러

李始恩양 또 銅、혼자서 3개획득

金柱錫은 사이클4천m개인추발 결승전에서 5분09초73으로 은메달에 그쳤다。

탁구

여자개인단식준결승전에 진출했던 梁英子와 尹璟美는 중공의 세계랭킹 1·2위 童玲、曹燕華에게 각각 3—0 3—1로 패해 銅메달에 머물렀다。

이날 尹璟美는 특유의 전진속공으로 曹燕華와 대등한 경기를벌였으나 찬스때 실수를 연발、3—1로 분패했고 梁英子는 童玲의 철벽수비와 노련미에 눌려 3—0으로 완패했다。

▲여자단식준결승
曹燕華 3 (21—17 21—13 19—21 21—19) 1 尹璟美
童 玲 3 (21—7 21—10 21—14) 0 梁英子
(중공)

▲혼합복식준결승
尹璟美·尹吉重 3—0 홍순철·이영숙(북한)

▲남자복식 준준결승
金浣·金琦澤 3—0 파리오노·산토스(인도네시아)

▲남자복식준결승
金浣·金琦澤(한국) 3 (21—18 21—19 21—7 21—23 15—21) 2 謝賽克·郭躍華
오노·아베 3—2 陳新煥·후이준(중공)

사이클

【뉴델리=聯】한국의 金柱錫은 4천m개인추발 준결승전에서 2분45초59를 기록、印度의 히카테루·싱을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金柱錫은 日本의 미쓰기·사루다떼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金永洙도 1천m스프린트서 예선을 통과、4강권에 올랐다。

사격

▲트랩개인=①와따나베·가주미(일본)189점 ②유히아퀸(중공)185점 ③란디르·싱(인도)185점 ▲스탠더드 3자세=①尹德夏(한국)571점 ②마쓰오·가오루(일본)570점 ③펭리킨(중공)569점 ▲단체=①중공 2261점 ②한국 2254점 ③일본 2251점

테니스

▲여자단체결승
한 국 3—0 중 공
金壽玉 2 (6—1 6—0 6—7) 1 쿼유아리
金男淑 2 (6—3 6—4 4—6) 1 리후안안
金壽玉·申順浩 2 (6—[illegible] 6—[illegible]) 0 이추랑·시아오핑
▲동3·4위전
일 본 3—0 필리핀
▲남자단체결승
인도네시아 2—1 인 도
▲동3·4위전
중 공 3—0 한 국

핸드볼

한국남자팀은 25일 바레인과의 예선B조 2차전서 34—24로 이겨 2연승으로 결승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해졌다。

한국은 24일 예선 첫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32—18로 꺾었다。

▲남자예선B조2차전
한 국 34—24 바레인
(2승) (1패)
▲1차전
한 국 32—18 사우디
▲남자B조예선리그
한 국 32 (17—9 15—9) 18 사우디
(1승) (1패)

골프

▲단체전=①인도 878타 ②한국 892타 ③일본 900타 ▲개인전=①싱(인도)291타 ②모타(인도)294타 ③사까다(일본)296타 ⑤金基燮(한국)299타 ⑪金丙勳(한국)302타 ⑭金柱憲(한국)304타

하키

▲여자4차전
한 국 7 (5—0 2—0) 0 홍 콩
(2승1무1패) (4패)

역도

▲75kg급=①알리타키진돔(이란)340kg ②미친루(中共)327kg ③야신·모하메드(이라크)317.5kg ⑧金基雄(한국)300kg

◇메달중간집계 <25일현제>

	金	銀	銅
①중 공	25	24	14
②일 본	20	16	14
③한 국	7	9	11
④인 도	5	4	2
⑤북 한	4	9	10
⑥필리핀	1	1	4
⑦印 尼	1	1	2
⑧몽 고	1	1	0
⑨이 란	1	0	1
⑩이라크	0	0	1
⑩싱가폴	0	0	1

◇26일 한국경기(한국시간)

▲육 상
여자 1백m 牟明姬·朴美善 (14시)
남자 4백m계주 張在根·徐末九·崔容準·金相文 (15시)
남자 8백m 金福柱 (17시15분)
남자투창 梁股寧 (17시15분)
▲수 영
남녀배영 1백m및 개인혼영 2백m 李忠原 (17시) ·崔允庭·崔允喜 (17시)
▲사 이 클
1천m스프린트결승 金永洙 (12시30분)
4천m단체추발 金籍憲·吳允煥·金柱錫·李龍佑 (12시50분)
▲사 격
공기권총 張大雲·李元錫·閔泳三·任泰鎬 (13시)
▲역 도
90kg급 李光鉉·金喆鉉 (18시)
▲테 니 스
여자복식 金壽玉·薛昊敬 (14시30분)
혼합복식 金春浩·申順浩 (14시)
▲하 키
남자—중공 (14시30분)
여자—일본 (17시)
▲배드민턴
남자단체—홍콩·말聯승자 (12시30분)
여자단체—중공 (17시30분)
▲복 싱
각체급1회전 (20시30분)
▲농 구
남자—필리핀 (20시30분)

육상(4백m 허들) 田京美 예선통과

농구、주최국 印度대파 127-56

육상

육상경기가 시작된 25일田京美는 첫경기인 4백m허들 예선1조에서 1분2초28로 4위를 차지、예선을 통과했다。

이날 북한의 김지옥은 5명이 출전한 예선2조에서 최하위로 골인、탈락했다。

농구

한국여자농구팀은 25일 풀리그 2차전서 주최국 인도를 1백27—56으로 대파하고 2승을 기록했다。한국은 전반에서 61—26으로 크게 리드했다。

▲여자리그
한 국 127 (66—30 61—26) 56 인 도
(2승) (2패)

한국、日과覇權겨뤄 아시아 럭비선수권

【싱가포르=聯】한국럭비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럭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홈팀 싱가포르를 32—4로 대파、日本과함께 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
한 국 32—4 싱가포르
일 본 43—6 태 국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90년 亞洲경기誘致 日히로시마

【홍콩=聯】日本의 히로시마(廣島)市가 86년도 서울아시안게임에 이어 오는 1990년도 제11회 아시안게임의 주최권을 따내기위해 뉴델리에서 맹렬한 활동을벌이고있다고 홍콩의 석간지 新晩報가 보도했다。

히로시마市는 각무단까지 뉴델리에 파견、향연을 벌이고 각국선수단장들및 관계인사들을 초청、설득공작을 펴고있다고 이신문은덧붙였다。

올최우수선수 홈즈 WBC

【멕시코시티=聯】WBC(세계권투평의회)는 24일 헤비급챔피언 래리·홈즈(미국)를 금년도 최우수복서로 지명했다。

WBC는 또 16차례타이틀을 방어한 밴텀급챔피언 월프레도·고메스(푸에르토리코)에게는 우수복서상을、그리고 눈부상으로 은퇴를 선언한 웰터급챔피언 슈거·레이·레너드(미국)에게는『복싱인생』상을 각각 수여키로 했다。

『올해의 복서』로 선정된 홈즈는 12차례의 타이틀방어전에서 11번 KO승을 거두었으며 프로전적 40전 전승을 기록하고있다。

北韓 LA五輪참가 代表團파견 通報

【로스앤젤레스=聯】84년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의 마이클·오하라부위원장은 이날 『북한은 84년올림픽에 소수의 선수단을 파견할 뜻을 전해왔으며 내년 8월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도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현재 IOC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美國내 전지훈련장소도 물색중』이라고 말했다。

◇골프 단체전서 2위를 차지한 한국선수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왼쪽으로부터 金基燮·金成浩·金柱憲·金丙勳。【뉴델리24日신문공동취재단】

뉴델리소식

허점利用한 逆轉 / 中共 이긴것은 끈기의 結實

◆…8년만에 아시아경기 여자테니스정상에 다시 오른 한국팀의 승리는 끈기의 결실。

체격이 남자만큼이나 큰中共선수들은 놀라운 힘을 갖고도 제풀에 꺾이고 말았다。첫단식에나선 金壽玉은 첫세트를 졌으나 中共의 유리쿼아가 2세트부터 金壽玉의 정확한 패싱·색에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역전승。金男淑도 中共의 후안리안이 마지막 세트서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는 헛점을 이용해 역전승했다。

金男淑은 中共선수의 다리에 쥐가날때 자신도 눈에 별이 보일정도였다고 술회하고 지난여름 속리산훈련때 문장대에 뛰어 오르던 기억을 되살려 힘든 고비를 넘겼다고。

망명선수 아쉬운듯 中共여테니스

◆…中共의 여자테니스선수단은 한국에 패한후 지난여름 美國원정경기중 망명한 후나가 몹시도 아쉬운 표정들。

당초 中共선수단은 후나와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로 구성돼 우승을 장담했었으나金壽玉·金男淑에 연패하자 서운한 모습。

中共선수단은 한국의 우승이 확정된 뒤에도 복식에 출전、다음대회를 대비하는 대국적인 기질을 발휘。

이번우승 점묫쳐 / 亞洲서 가장빠른泰선수은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알려진 태국의 육상 단거리주자 수차르트·제수라파르프선수는 이번대회 1백m경기에서 金메달을 딴후 은퇴할 예정。

금년32세의 노장선수인 제수라파르프는 78년 방콕대회에서 10초4로 금메달을 획득한바 있는데 은퇴이유는 아내와 2명의 자녀에게 보다 충실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는 3개월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 국제대회에서 10.3초를 기록했는데 日本의 신예 이소자끼·히로미선수의 도전을 뿌리치고 이번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學生 8명示威 네루 스타디움에서

◆…8명의 이란 학생들이 이번 대회의 주경기장인 네루 스타디움에서 反호메이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인도경찰에 체포됐다。

이란 학생들의 난동은 대회개최이래 이란인들이 관련된 2번째 사고인데 지난 22일에는 역도경기장에서 경기를 구경하던 2명의 이란 축구선수가 역시 反호메이니구호를 외쳐대는 이란유학생3명과 난투극을 벌인바있다。

아이스크림 禁食令 홍콩、체중조절위해

◆…홍콩임원진은 선수촌에서 팔고있는 아이스크림맛이좋아 선수들이 마구먹어대자 아이스크림禁食令을 내렸다。

한 홍콩임원은 선수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지못하게한 이유는 복싱선수나 수영선수들의 체중이 불어나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

한국善戰소식 紹介 中共、北京방송

中共의 北京방송은 제9회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이 탁구남녀단체전과 체조종목에서 은1·동메달2개를 획득하는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北京방송은 지난22일 끝난 남녀탁구 단체전에서 中共남녀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선수들이 출전한 각 종목의 성적을 소개했다。

한편 北傀의 선전기관들은 한국선수단의 전적은 일체보도하지 않고있다。【[illegible]】

86년 월드컵축구 印度유치 검토

◆…제9회 아시안게임을 나름대로 무난히 치르고있다고 자부하는 인도는 1986년 월드컵축구선수권대회의 유치를 검토하고있다。

인도문교부는 인도올림픽위원회의 요청에따라 24일 도축구협회에 월드컵개최에 필요한 기술적 가능성을 조회했다는것。

◇여자하키 한국—홍콩경기에서 崔銀玉이 홍콩수비를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한국은 7—0으로 대승、말레이지아와 함께 공동2위를 달리고 있다。【뉴델리24日聯】

金따낸 女테니스팀

2년전 日大會때의 패배 멋지게 雪辱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선수생활에 은총을 주신것 같습니다』

8년만에 한국여자테니스를 아시아정상으로 끌어올린 金男淑(26)은 金메달의 순간 金壽玉(21)과 함께 코트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74년아시안게임 첫출전서 단체전 金메달, 78년에는 여자단·복식을 제패했던 한국테니스는 이번의 우승으로 테니스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한셈。

이번 결승전서 맞붙은 중공의 유리키아와 후안리란은 2년전 일본서키트대회서 金壽玉, 金男淑과 한차례 대전경험이 있는선수들。

그때는 한국이 완패했지만 그동안 泰洲전훈등으로 잔디코트서의기술을 익히고 2년전의 패배를 설욕하려는 두선수의 강한 정신력이 승리를 거둔것이다。

金男淑, 金壽玉은 農協선후배사이。78년 방콕대회에도 함께 출전했으나 당시에는 楊正順, 李德姬등 노장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못했다。

강한 포핸드 스트로크가 일품인 金壽玉은 브니엘여고 1년때 全한국및 全日本주니어선수권을 석권했는가하면 農協입단 첫해에 78방콕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되는등 순탄한 선수생활을거쳐 이제는 국내 1인자로 성장했다。

좋은체격(1m65·57kg)에 포핸드는 무서운 힘을갖고있다。상대적으로 백핸드가 약한게 흠。

한편 이번대회를 끝으로선수생활을 청산하고 코치직을 맡을예정인 金男淑은 체력강화훈련과 종교적인 신념으로 슬럼프를 벗어나고 금년초 대표선발전에선 후배들을 누르고 1위로 뽑혔다。

슬라이스와 드롭·색등 쇼트볼에 능한 기교파로 잔디코트에서의 활약이 뛰어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체육인 교회집사까지 맡고있으며 테니스, 서적들을 독파하는 연구노력형선수。

새會長에 金政宇씨 아시아乘馬연맹

【뉴델리=신문공동취재단】아시아승마연맹(AEF)은 25일 총회를 열고 金政宇 대한승마협회부회장(사진)을 AEF회장으로 선출했다。

金회장은 오는 86년까지 아시아연맹회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수석부회장은 中共、필리핀·이라크·日本도 부회장국으로 선출됐다。

金昇淵 복싱聯회장 世界聯부회장 被選

金昇淵대한아마복싱연맹회장이 세계아마복싱연맹 수석부회장겸 아시아지역 회장으로 선임됐다。

【[illegible]】 지난23일 美國플로리다 스프링스市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연맹 정기총회서 임기4년의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돈·헐미국회장과 초드리(파키스탄)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예전과는 달리 아주 달라졌읍니다.
— New Management —
◎예전의 제일식품 가격이 아닙니다.
◎우선 가격을 최저로 떨어뜨렸읍니다.

일하며 생각하며

"글은 사람 그자체"… 眞實없이 쓴 글은 感動못줘

朴 賢 玲
<시 인>

매일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글을 써대어야 하고, 매일매일 「남의 글」을 읽기도 하는것이 나의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생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글은 이렇다, 저글은 저렇다 하고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매일 쓰는 글을 산문이라고 표현한다면, 시시때때로, 나의 전공인 <詩作品>은 시간에 맞추지는 않으나, 또한 최고·최대의 정성을 쏟아 만들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詩와 산문은 어떤 사고의 움직임 속에서 탄생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나의 골똘한 매일매일의 과제이기도 하다.

윈체스터라는 평론가는 「詩는 감정의 언어요, 산문은 理性의 언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있는 것을 보면 대강의 윤곽이 잡히고 있기는하지만 그렇다고 한마디로 이글은 이렇고 저글은 저렇다 하고 가늠해버릴 성질의것도 못되는것같다.

내가 관계하고있는 한라디오프로그램에는 "매일 전국에서 글쓰는것을 직업으로 하지않는 여성들의 신변잡기, 생활고백, 편지, 일기등의 글들이 1~2백통씩 투고되어온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들에게 산문만이 아닌 詩도 써보내주기를 예고했더니, 예고가나간 이튿날부터 오십통이상의 시가 투고되어 들어오고있다.

그들이나 나나 모두가 「기막히게 완벽한 시나 산문」을 써내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항상 많이 쓰고 많이생각하고 공부할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겠으므로 나는 특별히 시다, 산문이다라는 구분이나 어떤 전문성 같은 것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글쓰는 일, 글을 어떻게 잘쓸것인가?」에 대한 몇몇 저명한 학자들의 글을 찾아내어 보았다.

그들의 짤막짤막한 몇마디의 「암시나 충고나 힌트」로써도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글을 쓰려고 책상앞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될 거같아 적어 본다.

중국의 석학 홍자성의 「채근담」에는 『글을 쓸때에는 목공이 나무에 무늬를 새기듯이 세세한 선을 긋듯이 글을 쓰지 말고 굵은 해를 먼저 잡아 놓은 후에 세공을 하라. 또한 기교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한다. 너무 기교에 치우치다 보면 글에 품위가 없고 졸렬해지기 쉽다.

차라리 좀 투박하더라도 굵은 진실의 목소리가 담기도록 하라』라고 글쓰는 자세를 지침하고있었다.

또한 『훌륭하게 써어진 글은 후세에까지 전달되는 것이리라. 새로운 발견, 광범위한 지식, 사상의 특이성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너무 지엽적인것에 치우치다 보면 불멸의 보장을 받을수가 없다고 할수있다.

글이란 인간 그 자체이다. 글이란 남에게 빼앗기거나 바뀌어질수도없다. 만약 글이 고상하고 고귀하고 숭고하다면 그 저자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존경을 받을것이다』라는 자신있는 말을 일찌기 갈파한 분은 18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박물학자였던 샤를·뷔퐁이란 분이다. 뷔퐁교수는 이미 18세기경에 <문체론>을 발표하면서 그의 해박하고 논리정연한 논지를 갈파하며 있다고 한다. 『글은 그사람 자신이다』라는 유명한 말은 글에서 그 글쓴사람의 체취를 맡을수가있고 글쓴 사람의 모습까지도 상상할수가 있다는 얘기로서 글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나 자세에 새삼 새로운 일격을 가하는 것이 아닐수없는것 같다.

글만번지르르하고, 사람이 그글을 따르지 못할때 그 글은 빛을 잃고 진실의 목소리가 퇴색되어 시체와도 같이 생동감을 잃게 될것이다.

글이 감동과 감격을 안겨주고 진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도 되겠다.

손끝으로 쓴 글, 기교만이 무성한 글은 아무런 감동도 주지못하며, 글에 생명과 혼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것이다.

女記者 칼럼

約婚女의 권리·胎兒의 권리

張 明 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고 洪秀煥처럼 소리쳐주기를 기다렸던 권투선수 金得九가 棺속에 누운채 21일 고국에 돌아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WBA라이트급 챔피언」이란 아무의미가 없는것이지만,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마지막 경기」에서처럼 투지만만하게 가난과 역경을 극복해온 그의 生에 대해서 권투팬들은 영원한 챔피언·벨트를 걸어주고 싶어한다.

죽은자의 문제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아들을 잃은 老母, 그의 아기를 임신한채 「죽은자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나선 約婚女… 그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는 6개월후에 태어날 金得九의 아기라고 할수있다.

金得九의 죽음이 기정사실로 굳어졌을때 약혼녀 李英美양이 『영혼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임신3개월인 아기를 낳아 기르며 金得九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자 일부에서는 『金선수의 遺產과 誠金이 어디로 갈것인가』를 놓고 약속한 추측들을 하기 시작했었다. 金得九가 돌아오던 21일의 공항풍경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공항과 빈소를 취재했던 기자들은 金선수의 어머니 梁仙女씨가 공항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며 울부짖는 약혼녀를 냉정하게 물리쳤으며 빈소에서도 약혼녀가 金선수의 유해에 가까이 가는것을 막았단」고 전하고있다.

美國에서의 신중한 처신으로 그곳신문들의 존경을 모았던 梁仙女씨가 아들의 약혼녀에게 보인 이런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들의 약혼식에 참석하여 「며느리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뿐 아니라 아들의 아기까지 임신하고있는 여성에 대해서 그는 왜 이처럼 냉정하게 구는것일까. 金선수를 아끼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돈을 둘러싼 신경전」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빌고있다.

法的으로만 따진다면 현시점에서 金선수의 遺產과 성금을 가질수있는 「가족」은 어머니 梁仙女씨와 「法的인 아버지」인 계부 金씨이다. 그러나 6개월후 아기가 태어나고 親子인지청구소송을 거쳐 金선수의 자식임을 인정받게 되면 그아기는 婚姻外子로 입적할수있을뿐 아니라 獨子로서 유일한 상속권자가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재산을 상속해버린후라면 그아기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낼수있다.

상속재산이란 엄격히말해서 金선수가 생전에갖고있던 재산을 가리키는것이지만 성금이나 부의금등도 상속권자에게 귀속된다고보는 견해가 강하다. 金선수가 들었다는 보험은 有事時의 보험료수령인을 지정했을것이므로 상속대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기전에 金선수의 유산과 성금을 他人이 다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내어 승소한다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기쉽다. 이런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날때까지의 재산관리인제를 法으로 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 胎兒의 상속권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관리인제등에는 신경을 쓰지못하여 法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약혼녀는 아무런 法的인 권리가 없다. 金선수가 아무리 그를 사랑했고, 숨지면서 약혼녀와 胎兒를 염려했다하더라도 유언을 남기지 않은이상 성금도 유산도 그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단지 誠金이란 돈을 낸사람이 『누구를 위해 써달라』고 지정한 권리가 있으므로 성금전체가 자동적으로 「法的인 상속권자」에게 간다고 볼수는 없다. 이 모든 「法的인 해석」은 金선수의 경우를 빗대어 말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상속규정을 설명한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챔피언·벨트」를 매고 세상을 떠난 그의 유족과 사랑하는이들 사이에 法이 개입할일은 없을것이라고 권투팬들과 함께 믿고있다.

은행잎 편지

엊그제 아침이다. 세수하러 마당에 나갔던 6학년 큰애가 큰소리로 엄마를 부르는소리에 나가보니 노란 은행잎 하나를 손에들고 대뜸 『엄마는 감정도 없수? 엄마 우리동네 어디에 은행나무가 있지?』 하고 묻는다. 『글쎄다』하니 『아마 가을님이 나에게 보낸 편지일거야. 엄마는 먼저 마당에나갔으면서도 왜 은행잎을 못봤어』하고 핀잔을 준다.

그러더니 흙속에서 진주를발견한듯 기뻐하면서 동화책 갈피속에 물기를닦고 곱게 끼어 놓는다. 두애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혼자 앉아 생각하니 참 내 감정도 어지간히 메말랐구나싶다. 쌀을 씻으면서 은행잎을 보았지만 빗자루로 쓸어버릴 무의미한 쓰레기로만 여겼다.

한창 시절엔 무던히도 낙엽을 좋아 했던 나인데….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를 연발하면서 친구들과 서울의종로에서 돈암동까지 수많은예쁜 낙엽을 주우면서 걸린 것이 엊그제같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멀리 보이는 북악산은 허리에희미한 안개띠를 두른채 빨강노랑 오색무지개를토해내면서 나를불렀다.

지금은 이조그만 소도시에서 새장에 갇힌 짝잃은 한마리 새가되어 소중한 두개의 보석(두딸)과함께 5년째 엄마노릇 아빠노릇하며 참으로 바쁜세월을보낸다. 애들을 데리고 낙엽도줍고 산에도 오르며 정서를 찾아야겠다.

【김홍도·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1가 6-8】

海外演藝화제

존·휴스턴「생애업적상」受賞

리즈 새愛人은 「착실한 대머리」…7번째

엘비스·프레슬리前妻 프리실라 銀幕데뷔

6개월전부터 교제

○…엘리자베드·테일러에게 새로운 남성이 생겨 화제. 7번째 남편이 될지도 모를 이 남성은 착실하고 대머리인 55세의 빅터·곤잘레즈·루나. 미국인들의 멕시코 부동산 투자를 도와주고있는 루나는 현재 부인과 별거중이며 성장한 자녀가 5명이라고 한다.

리즈와 루나는 6개월전부터 알아왔으나 공개석상에 다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는 몇주전부터이다.

◇리즈·테일러

헐리웃巨匠 축복賞

○…지난 53년간 감독·제작·스크립터·연기자로 할리우드를 석권해온 존·휴스턴(76)이 83년도 AFI(美필름인스티튜트)의 생애업적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지·스티븐스·주니어AFI회장은 『휴스턴은 전생애를 영화에 바쳤으며 시간이 흘러도 전세계영화팬들의 가슴에서 잊혀지지않는 명작들을 만들었다』고 치하했다. 휴스턴은 처음 기자로출발했으나 곧 영화계에 뛰어들어 많은 작품을 썼고 41년에는 첫감독작품「말타의 매」로 오스카상후보에 올랐었다.

◇존·휴스턴

初演에 놀라운연기

○…故 엘비스·프레슬리의 전처 프리실라·프레슬리(37)가 태국서 촬영중인 영화「귀향」으로 은막에 데뷔한다. 홀·바틀레트가 감독하고 마이클·랜든이 제작·주연한 이 영화에 발탁된 프리실라는 스턴트맨도 물리치고 하기 어려운 다이빙과 수중촬영까지 해냈을 정도로 분투했다고.

지난 73년 이혼한 이래 비벌리·힐에서 가게를 경영하며 ABC·TV 「놀라운 동물」등의 공동사회로 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프레슬리의 전처라는 이름때문에 나는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한다』고 강조.

◇프리실라·프레슬리

밀러, 監督으로각광

○…영화「엑소시스트」에서 의지가 강한 신부역으로 명연기를 해낸 제이슨·밀러가 7년전 퓰리처상을 받은 자신의 연극「That championship season」을 감독,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한 작은 마을의 고교농구선수들이 나이가 들어 재회한다는 내용의 이 작품은 퓰리처상뿐만아니라 뉴욕·드라머비평가상과 토니상을 받은 걸작.

◇제이슨·밀러

입원하고 起訴되고

○…영화「굿바이 걸」로 오스카상남우주연상을 받고 「조스」로도 잘 알려진 배우 리처드·드라이퍼스(34)가 마약소지혐의로 기소됐다. 드라이퍼스는 지난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때 병원근무자가 그의 옷을 조사하던중 코카인과 진통마약인 옥시코돈을 발견, 기소된 것이다.

【LA支社=朴興津기자】

海外女性

美 게이츠의 著書 「80년대 유망職業90종」

"失業면하려면 專門기술을

放送職 가장인기

○…美國 뉴욕에서 프리랜서 작가겸 경영상담역으로 일하고있는 애니타·게이츠라는 여성은 최근 「80년대의 가장 유망직업 90종」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게이츠는 실업자가 많아지는 美國에서 성공하려면 고용주들의 눈에 들도록 전문기술과 지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한다.

46년부터 61년사이에 태어난 아기 (현재20살~35살)들은 지금 전미국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데 기계화의 발달로 일자리는 점점줄어들고있어, 실업자는 많아질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가 이책에서 가장유망한 직종의하나로 꼽는것은 방송관계의 직업이다. 방송관계도 경쟁자가 많기는하지만 케이블TV (공청안테나 텔레비전)의 발달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얘기한다.

게이츠는 또 많은사람은 컴퓨터관계직을 유망하다고말하지만 벌써많은사람이 컴퓨터프로그래밍등 각종기술을 익혔거나, 배우는중이어서 새로 지금 시작하려면 늦었다고말한다.

◇「80년대의 가장 유망한 직종 90종」이라는책을 쓴 애니타·게이츠㊤.

◇전 동성연애자에게 피소당했던 테니스계의 여왕 빌리·진·킹이 지난 19일 LA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빌리·진·킹 同性연애被訴사건서 승소

「앵커우먼」은 "懷疑 품게하는책" 酷評

"同性愛 근거없다" 와이즈먼이 꼬집어

○…테니스스타인빌리·진·킹은 그녀의 동성연애자였던 마릴린·바네트로부터 피소를 당했던 고소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19일 로스엔젤레스 대법원 최종심에서 「바네트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빌리·진·킹에게 승리를안겨준 것이다.

이 재판에는 원고, 피고는물론 킹의 남편인 래리·킹이 대신 참석했다.

바네트는 미용사출신으로 빌리·진·킹의 비서겸 동성연애 상대였는데 74년부터 킹의 소유인 말리브 해안의 집에서 살아왔다. 바네트는 이 집에서 넘어져 두다리를 잃었고, 현재는 킹과의 관계도 끝난 사이인데 「이 집을 자신의 소유로 해달라」고 81년 4월에 소송을 했었다. 킹은 이 재판에서 「그녀와 6년간 연애를 했지만 집은 못주겠다」고 말했었다.

바네트는 「미용사로 일하던 72년에 미용실에서 킹을 만나 곧 사랑에 빠져서 미용사를 그만두고 비서가 되었다」고 생활보상을 요구한것이다.

○…최근 美國의 한TV앵커우먼인 제시카·새비치가 저술한 「앵커우먼」이란 책은 「TV의 저널리즘에 회의를 품게하는책」이라는 혹평을 받고있다. 「TV가이드」誌의 워싱턴지국장인 존·와이즈먼은 『전 NBC워싱턴지국장의 이름을 잘못 썼고, 80년도 공화당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의 순서를 잘못썼으며 앵커우먼이 되는길은 별다른 재능이 필요없고 미모와 美聲만 갖추면 된다는식의 내용』이라고 비평한다.

새비치는 70년에 휴스턴市의 채널11 기자로 처음 방송기자 생활을 했는데 「TV뉴스 취재를 어떻게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했었다고 책에서 회상했다. 이를읽으면 앵커우먼들에겐 작문력이나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마저 필요치않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고 와이즈먼은 꼬집었다.

『새비치는 또 77년에 NBC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고 상원의원들을 취재했었는데 이때 그녀는 국내 정치를 취재한 경험이 없는 쑥맥이었다』고 또 다른 비평가들은 혹평을 하고있다.

月1회로 완전피임

○…먹는 피임약에 부작용이 있다는건 널리 알려진얘기다. 체질에 따라서는 혈압상승, 두통, 정서불안, 심장마비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발터·헤르만박사는 한달에 한번 먹으면 부작용이 없이 완전피임이 된다는 약을 개발해냈다. 헤르만박사는 이 약을 美國의 식품의약국(FDA)의 공인을 받은후 18개월지나면 실용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피임약은 21일을 주기로 먹는데 이번의 새로운 약은 생리전날 이틀사이에 한번만 먹으면 부작용 없이 배란이 억제된다는 것이다.

헤르만박사는 『이 약을 복용할때 기억해야할 것은 한달에 한번 복용일자를 잊지 않는것 뿐이다』라고 말한다.

健康食등 美서붐

○…생활 수준이 높고, 비만체질인 사람들에게 근년에 와서 세계적으로 건강식과 체중조절식(다이어트)이 붐을 이루고있다. 이에따라 美國의 食飮料제조업체들은 건강에 해로운 설탕(영양소)을 포함하지 않는 식음료개발을 서두르고있다. 예를들면 『설탕이 없고, 카페인이 없고, 소다가 없으며 방부제를 섞지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식음료계의 혁명」은 최근 美國科學院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줄이기위해서 다이어트를 포함한 음식에 관해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6백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이논문의 골자는 『비만하고 건강을해치지않도록 소금을넣은 음식과 피클(소금, 식초에 절인 음식) 훈제식품을 줄이며, 훈제품을 적게먹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먹어야 위험이없는 곡물을 먹으라』고 충고하고있다.

한편 금년초 하버드大學의 한연구는 코피와 췌장암과관계가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건강문제 전문가들은 코피와 콜라등 카페인이 들어있는음료수를 많이 마시지말라고조언하고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보고에 따라 식음료의 소비가 줄어들것을 염려한 식음료업체들은 고객을 놓치지않기위해 카페인이없는 다이어트식음료 개발에 수백만달러씩을투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女教師 10마일渡泳

○…수잔·하임이라는 24살난 美國의 한 여교사는 샌프란시스코의 오클랜드灣다리에서부터 金門橋아래 브레이커즈라는 지점까지 10마일(16㎞)을 헤엄쳐 건넜다. 샌프란시스코의 수영선수클럽인 「돌핀클럽」은 이 횡단이 10마일을 수영한 최초의 비공식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임은 2시간5분47초동안 수영을 했는데 수영후에는 잠시 다리의 감각이 둔해졌었다. 그러나 『내가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렸다』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百6세 老母子함께

○…핵가족이 발달하고 노인은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美國에선 老母子가 함께 의지하며 살고있는 흐뭇한 얘기가 있다. 워싱턴州 스포칸市 북쪽에 살고 있는 106세의 어플라이·크룸 할머니와 80세의 아들빌·숄터 母子다. 이들 모자가 살림을 합친것은 4년전. 크룸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며느리 (숄터의 부인)가 4년전에 죽은후에 서로 노후를 의지하며 보내자는 아들의 제의를 받고 한집에 살게 됐다.

숄터 할아버지는 피아노를 즐겨치는데 즐기는 레퍼터리는 「예기의 추억」. 아들은 피아노를 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세끼 식사를 준비하며 보살펴준다. 그러나 크룸할머니가 간혹 피아노소리에 싫증을 내면 아들인 숄터 할아버지는 기타와 하머니카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크룸 할머니가 좋아하는 曲인 「아름다운 텍사스」를 연주한다.

◇한 집에서 사이좋게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있는 1백 6살의 어플라이·크룸 할머니가 80살난 아들 숄터를 위해 점심준비를 하고있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 婉 緖 作 <277>

부드러운 겨울③

그 생각은 고열(高熱)처럼 몸살처럼 수지의 의식을 혼미하게하고 몸을 고달프게 했다.

일곱살적만도 못해. 여북해야 그녀는 싸고, 싸고, 꽉꽉 움켜쥐고있던 일곱살적의 자신을 불러일으키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잔혹성엔 어른이 이해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데가 있다는것도 구구하게 일곱살적의 자신을 변명하는게 고작이었다.

그녀는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그러나 어쩔수 없이 유기사가 근무하는 보일러가게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곧유기사대신 사장한테로 연결이 됐다. 사장은 유기사한테 집으로 들러달란는 수지의 전갈을, 보일러공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송구스러워하기부터했다.

『아, 아니에요. 보일러공사는 썩 잘 된것같아요. 고장 없고 기름은 전보다 훨씬 덜 들고…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유기사한테 좋은 소식이있다고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일이 좀 급하게 됐다구요. 그럼 아마 알아들을거예요』

전화를 끊고나서야 상황을 말라했거늘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어쩔수없이 몸살을 털고 일어났다. 목욕을 하다말고, 가벼운 식사를 하다말고, 그녀는 간간이 몸서리쳤다.

끔찍한 일이야. 오오, 끔찍한 일이야. 무엇이 그렇게끔찍한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일곱살적의 자신이 끔찍한 것도 같았고, 그후 몇번의 재회에도 불구하고 오목이를 모른척한것이 그런것도 같았고, 재회의 기회를 끊임없이 마련해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천벌이랄까, 운명이랄까의 음흉한 손길이 그런 것도 같았다.

아니 가장 끔찍한것은 오목이의 운명이었다. 세상에, 그애가 무슨죄가 있다구….

수지는 자기 대신 오목이를 벌한 천벌의 눈먼마수(魔手)에대해 다시 분노가 끓어 올랐다. 그러나 천벌의 눈가리개를 풀어줄 용기는 차마 없었다.

수지는 안절부절못했다. 곧 유기사가 달려오리라. 상종을 안하는게 순리, 상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유기사가 소원하던 중동에 가서 돈을 좀 낫게 벌게해주는 걸로 오목이와의 계산을 끝낼 수는 없는 것일까?

수지는 지난날의 자신이라면, 능히 그럴수도 있었다는걸 알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렇게쉽고 간단하게 계산을 끝낼수없는 자신에게 오히려 어리둥절했고부담스러웠다. 자신이 그렇게부담스러워보기도 처음이었다.

수지는 자신의 머리칼을부득부득 쥐어뜯었다. 곧 유기사가 달려올테고 그녀는 유기사를대할 준비가 돼있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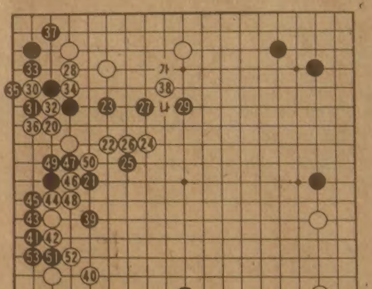
그녀는 비틀대며 이층으로 올라갔다. 이층 아이들 방은 텅비어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간것일까? 그녀는 가슴을 두근대며 그 문제를 오래 생각했다. 힘겹게 정신력을 집중시켜 생각하고 또생각한 끝에 운전기사와함께 스케이트장에 보낸 생각이났다.

무엇을 겁 내고있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 수지는 이렇게 자꾸 겁을 먹고 있는 자신에게 소리 내어 중얼댔다.

이층에서 바라보이는 바깥세상은 밝고 고요했다. 훈훈한 실내온도때문에 밖이 지극 겨울이라는게 믿어지지않을 지경이었다. 마당의 나무와 잔디가 죽어있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3譜 20~53
白 (4段) 姜 勳 (1勝)
黑 (4段) 李相澈 (1勝)
(각5시간·덤5집반)



黑 심각한 損傷

白20이하 28까지의 과정을 다시 번 살펴보자.

우선 白20의 급소에 대하여 黑21은 그렇다하고 다음 黑23은 「속히 37자리에 두어 완생해야 편했다」는 평이다. 白24로 뛰어나간뒤 거듭 黑27로 뛰었으나 白28이 강렬하여 이후黑전체가 미생마로 되고말았다.

李4단은 그러나 태연하게 黑29구차스레 귀를살아 두니 중앙에 말들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수가 無策에 가까왔다는 중론이다. 『이런경우일수록 뭔가 비상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黑「가」로 어깨를 짚는것도 하나의 발도 있었다』.

과연 白30의 일격을 당하여 32, 34로 끊어버리자 그제는 黑37이 불가피하고 거듭 白38로 늘여다보자 중앙일대의 주도권은 白의 수중에 들어간 느낌이다.

黑「나」로 이어도 거북해서 李4단은 숫제 손을 빼고 黑39, 41로 좌변에서 전단을 모색했다. 黑은 일종의 실리작전이다.

하지만 黑41로 국후에는 판이 좋지 않았다. 白42에서 44, 46하는 노림이인 반면 黑53까지의 싸움은 白이 과하게 보이는데 「잘 살피면 그렇지도 않다」며 趙南哲8단은 여운을 남겨 놓았다. 정말 그럴까. 白의 다음 수가 무척 궁금한 장면이다. 【一人】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냠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 중국산·한약·직수입
•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복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693 Bloor St. W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 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등···
영업시간: 수~토-5:30pm~11pm 일-5:30pm~10pm
5304 Yonge St.(at Finch) 221-1621 월·화는 휴업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SUN'S FRUIT MARKET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튼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Professional Instruction 운전지도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Professional Inventory ◉모든 Store 인수, 인계 일절 처리.
Inventory Service of Canada
전화 : 665-8300 Nick.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운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 Mr. 탐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찬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편에)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illegible]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533-2361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 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밤일할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밤12시-아침7시까지, 1주에 50시간.
전화 : 884-2747

맥스밀크에서 금·토·일요일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8-4867

칸추리스타일 도넛숍에서 주말에 일하실 파트타임 헬퍼 구함.(Keele & Finch 지역)
전화 : 630-9413

레스토랑 맡아서 경영하실분 구함.
전화: 859-4554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함
전화 : 271-1482

그로서리 스토아 메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젊은 부부 환영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5-9270

경험있는 헬퍼 구함.
Mississauga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주방 여자 헬퍼 구함.(50세 미만)
전화 : 537-0432

가정일 돌봐주실분 구함.
전화 : 762-1572

도넛츠가게에서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861-1521, 222-3877

혼자 독립하여 성공할수 있는 최대의 기회!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더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음
연락처 : 463-0798

◉경험있는 호텔 청소하실분 구함(11PM~7AM)
◉경험있는 수퍼바이저 약간명 구함.
전화 : 630-2450

Koto일본음식점 Kitchen Helper 구함.(윈치지하철서 10분거리)
인터뷰 : 11월27일(토) 12월4일(토) 오후2시~5시.
5304 Yonge St. 전화 : 221-1621, 826-7676

1개월간 목공일 하실분(기술 필요치 않음)
AURORA 지역.
전화: 1-727-1021(낮12시~1시 연락바람) Mr. 조

오리엔탈·팔레스
한식요리사 1명, 일본식요리사 1명 구함.
전화 : 533-3545

금·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
Islington & Rexdale
전화 : 742-0800 Mr. 리

Oakville Convenience Store 매니저 구함.
현재 주매상: $8,000이며 스탁은 캐쉬로 원함.
전화: 633-5231(Mrs. 윤), 669-1518(Mr. 유)

주말에 도넛숍에서 밤일하실분 구함.
금·토요일밤: 밤11시~아침7시.
전화 : 977-0303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8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3-3674
송공문화협회	444-3658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 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매 매

Bakery 매매 또는 동업자
구합니다.
전화 : 961-9780 오전10시~오후7시

오픈하지 1주일된 새가게 매매.
New Plaza, New Sub. Div.
Call Guneva Real Estate 749-6677 Mr. 조

<81년도 Dodge 스테이숀 왜곤>
4기통, 25,000Km. $ 7,500.00
전화 : 535-4441 Mr.김

Luckey Doller Store, 비지니스 재료와 빌딩, 가족이 운영하기 좋음. Town에 있고 바쁜 Highway 옆이고 살림집 있음. 저희는 토론토 북쪽에 여러가지 스토아가 또 있읍니다.
◉아스킹: $135,000+스탁, ROYAL TRUST REAL ESTATE.
전화: (416)691-6111(토론토)
·(705)325-6193 Degraw Rben(Red)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 $3,500
전화 : 255-7597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부동산 투자. Detached 벽돌사무실 빌딩.
7,800 sq. fit, 년매상: $50,000정도
Hollywood Real Estate Ltd. 746-4360 John Ritacca.

성업중인 그로서리스토아 급매. 주매상: $6,500~$7,000
아스킹: $69,000+스탁. 렌트: $650
오타와지역. 전화 : (613)-238-3837

Pickering에 있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빨리 팔기위해) 아스킹 $63,000 내렸음.
주매상:$7,200. 1,200 sq.Ft. 렌트: $500.
Plaza 내에 있음. 주인이 이사함.
Bagot Realty Inc. (Rlts.)
1-579-4010 or. Frank Magnus 683-8154(저녁)

Drycleaner's Depot 매매.
◉스카보로 지역. ◉좋은 리스.
전화 : 751-7615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위치·경쟁없음
Set up한지 2개월. 주매상: $3,700+비데오(월 500수입)
증가중에 있음 ★46 Annette St. TOR.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권리금 없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St. Catharines.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1 Bd Room 아파트. 스카보로지역
(Markham & Lawrence) 리스 83년7월까지
전화 : 438-4537(오후4시~8시) Mr. 한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843

콘도미니움아파트 렌트. 3Bed Rm.(Jane & Eglinton지역)
◉월$700(다 포함됨) 실내수영장·사우나·체육관 있음
전화: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글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0628(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미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킴스 카메라.
각종사진'현상, 증명사진, 회갑·결혼사진등.
619 Bloor St. W. 534-1085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대일 오디오 비데오
T.V., 전축 스테레오, 각종 전자제품
전화 : 270-0679, 279-3174 임문호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